

함께가는 여성

2008. 3·4 www.womenlink.or.kr

기획

'오빠'의 세계

민우ing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원하는가? - 낙태에 대한 '다른' 말하기

TV수신료 누구를 위해 올려야 하나

쟁점과 현안

운하, 왜 하니?

범죄를 멈출 수 있다면 '치료'를 바라오!





2008. 3. 8 여성의 날 시청의 풍경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던
한무리의 붉은 물결

한창 따뜻해진 봄 날씨에 코에 바람 넣으며
시내를 활보했던 여성의 날,
마치 소풍같았던 여성의 날이었다.



2008. 3 · 4

- 02 민우ing
02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원하는가? - 낙태에 대한 '다른' 말하기 _ 봉달
05 TV수신료 누구를 위해 올려야 하나 _ 강혜란
- 08 민우칼럼 창 ● 내 인생의 이모작 _ 김인숙
- 10 기획 ● '오빠'의 세계
11 '오빠' 내 욕망이거나 아니거나 _ 노재윤
14 '오빠'가 뭐길래? _ 달마
16 오빠사전 · 오빠X파일 _ 이오
- 18 민우역사기행 ● 1994년~2000년,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 속으로 _ 유경희
- 22 쟁점과 현안
22 운하, 왜 하니? _ 권범철
25 범죄를 멈출 수 있다면 '치료'를 바라오 _ 이임혜경
- 28 국제통신문 ● 다시 그리운 생문동 생협 공동체
- 김종애, 윤희경, 이경미 그리고 김인숙 선생님에게 _ 김금미
- 30 민우스케치
- 31 평동 사무실에서
31 전환기의 평동, 새 세대 청춘송가 _ 신기루
34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를 바라보며 _ 권미혁
- 36 모람풍경
36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 _ 황금소영
38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해 _ 진차
- 40 문화산책 ● 열정의 고하는 어디가고? _ 풀
- 42 생협이야기 ● 이제, 논에서 사는 생물과 이야기하자! _ 박민경
- 44 모람활동
44 [세여소의 말걸기] 나, 특별한 그녀를 만나다 _ 흰물
45 [바닥] 바닥은 이번 달 이런 자료를 읽는다! _ 바닥
- 46 민우알림
46 지부소식
48 독자마당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시 : 2008년 2월 13일(수)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원하는가?

- 낙태에 대한 '다른' 말하기

여성건강팀 봉달 ●

나는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자들을 '꽤' 알고 있다

가깝게는 엄마가 있고 친구도 있다. 친구의 친구, 후배의 친구처럼 누구누구의 아는 사람까지 치면 더 많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정 세대가 거쳐 온 시대의 단면이거나, 그렇고 그런 통속 소설의 줄거리로 말이다. 사실 '낙태'는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의 과정이거나 결과이다. 한 줄의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내가 아는 이야기들이 단순 분류되는 것은 왜일까? 그건 '낙태'가 이야기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에게 낙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오점'이 된다. 믿을 수 있는 몇몇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숨겨야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낙태는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문'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낙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될 때가 있기는 하다. 가족의 역사-5남매가 아니라 3남매가 된 사연-를

누구도 낙태라는 사건을 원하지는 않는다.

단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출산을 결심하는 것은 양육을 담당하게 될

여성 자신의 삶과 자라날 아이의 삶을 기획하는 일이다.

그 삶을 살아내고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이는 평생의 생존권을 건 선택이다.



설명하거나, 누군가의 도덕성-결혼하자던 남자가 여성이 임신이 되자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을 고발하려(또는 이를 통해 여성을 훈육하고자) 할 때이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결코 화자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어머니나 '소문' 속의 부도덕한 '여' 주인공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말하면 낙태는 다른 '사건'이 된다

내가 듣는 낙태 이야기는 몇 마디로 단순 분류되는 것이지만, 그녀들에게 '낙태'는 구구절절한 사연이다. '낙태'는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성관계, 임신, 출산(이후 양육)이라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낙태는 그/녀(중요하게는 그녀)를 둘러싼 사회와 관습의 망에 의해 규정받는 행위이다.

하나만 넣자는 가족계획 시절에는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지원했다. 지금은 출산장려 시대라지만 임신한 비혼 여성에게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출산장려의 대상이 되는 결혼한 여성이라도 무작정 아이를 낳고 볼 수는 없다.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기획, 임신 가능한 여성을 구분 짓는 범주, 양육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이 그 여건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위치-임신과 출산 이후 직장생활이 가능한가, 비혼 여성의 출산이 인정받는가,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살 수 있는가 등-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누구도 낙태라는 사건을 원하지는 않는다, 단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출산을 결심하는 것은 양육을 담당하게 될 여성 자신(때로 배우자나 가족)의 삶과 자라날 아이의 삶을 기획하는 일이다. 선택의 순간 삶을 규정하는 여건들이 우선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출산이 만들어 내는 삶의 모습(아이를 포함하여)을 상상해 볼 때, 그 삶을 살아내고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이는 평생의 생존권을 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이 체감하는 '여건들'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현실은 구구절절한 '사연'이 된다. 하지만 그런 '사연'은 늘 삭제되고, 잘못된 행위로 (규정된) 낙태만 남는다. 행위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함께.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현실은 어떤가? 낙태 경험자 중 42%는 비혼, 58%는 기혼이다. 비혼여성의 96%는 사회경제적 이유(비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등), 기혼여성의 76.7%는 가족계획(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 성별이 아님) 때문에 낙태를 한다.¹⁾

낙태가 벌어지는 현실 속에는, 연애와 성관계 등에서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어려운 여성의 현실이 있고 비혼 여성의 임신에 대한 끔찍한 낙인이 있다. 기혼여성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어떤 아이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미비하고, 천문학적인 양육비(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남아선호'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낙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낙태 허용이 낙태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어불성설이다.

누구에게나 낙태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일이고, 낙태 허용이 이러한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없는 상황’들도 변하지 않는다. 이는 낙태를 걱정하는 시선이 ‘여성’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 돌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여성이 낙태를 하면, 몇몇 경우(성폭력, 건강상의 위험, 유전 질환 등)를 제외하곤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그렇다. 한해 낙태 추정건수는 34만 건, 이중 4.4%만 합법적인 낙태¹⁾. 법에 의한 금지규정이 만든 결과이다. 법대로 한다면 95.6%의 여성과 그녀를 시술한 의사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낙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낙태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낙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낙태 허용이 낙태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어불성설이다. 누구에게나 낙태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일이고, 낙태 허용이 이러한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낙태 금

지가 가져올 결과는 분명하다. 수많은 여성들을 불법 낙태의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진심으로 낙태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을 만드는 데 매진할 일이다.

다른 세상을 상상하면 어떻게?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비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어떤 아이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원치 않은 임신은 줄고 그만큼 선택의 순간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내용은 변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낙태를 말하는 화자와 그 내용을 달리 구성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임신, 낙태 혹은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일임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결국 이야기의 내용은 여성의 경험과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²⁾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³⁾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인공이 바뀔 수 없다면 말이다. ^②

봉달 ● 늘 행복을, 즐거움을, 출발을, 만남을 꿈꾸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 요즘의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1), 2)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TV수신료 누구를 위해 올려야 하나

강혜란 ●

안타깝게 폐기되는 수신료 인상안

2007년 KBS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는 무려 27년만의 일이다. 이 법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진보적 성향의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심지어 4000원이 아니라 6000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활발한 공개 토론, 칼럼을 이어갔다. 이는 궁극적으로 빠른 국회의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에 질세라 보수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수신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방은 국회에서도 여전하였으며 '닭(수신료인상)이 먼저냐 알(구조조정)이 먼저냐'는 논쟁 속에서 결국 회기를 넘기고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매체 간 무한 경쟁과 공영방송

문득 20년 전이 떠오른다. 그때 우리는 KBS시청료 거부운

동의 정점에 서있었다. '땡전뉴스'로 상징되는 정권의 나팔수를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열화와 같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그때 KBS를 지키려 했던 보수권력은 연일 KBS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하고, 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진보적 단체들은 이를 감싸 안으려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입장의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그 답은 변화된 매체환경과,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말한다. 이는 과거 국영방송과는 다른 의미다. 공영방송이란 이윤 추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을 말한다.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이지만, 그 과정에서 KBS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물론 이는 KBS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결합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 권력형 압력의 축소 등 변화된 외적 조건으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었다.

극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상황 속에서 이미 '문화'도 '상품'이다. 때문에 좀 더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자극적 소재 발굴이 대다수 채널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이러한 상업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포퓰리즘을 넘어서 민을 위한 정보’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비오락적 요소에의 투자’ 등을 담아, 유익한 것을 대중화시키고 대중적인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오히려 탈규제 흐름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분명한 것은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그나마 KBS가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KBS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지상파 무료망의 복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의 무료망 관리를 KBS가 맡고 있고, 이러한 무료망의 복구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더욱 다양해졌고 이는 거대 자본 간의 경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IPTV는 새로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 매체로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동전화’ 등이 다양하게 패키지로 구성되어 싼 가격에 공급되는 결합상품의 시장경쟁이 본격화되면 미디어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리고 결국 그 시장의 성패는 KT나 SKT 등 거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다. 왜?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 규모에 있어서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거대 공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결국 독과점적인 상황에 이르면 요금 인상이 필연

적이라는 것이다. 이때 시민들이 되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무료망(지상파방송망)을 되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각자가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2006년 케이블TV(당시 지역 독점의 성격)의 디지털화에 따른 요금인상 기도가 시민적 저항을 받았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독점적 또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일방적 요금인상을 기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송출 중단’은 이러한 무료망을 제대로 복구시키지 못할 경우 지상파방송조차 보지 못하는 계층을 출현시킬 수도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즉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를 누리는 계층과 지상파 방송조차 보지 못하는 계층으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정보격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 결국 수신료 인상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KBS 정치적 독립의 중요한 변수

누군가 내게 묻는다. 그런데 MB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가? 물론이다. 그 이유는 재차 언급하는 것처럼 KBS가 국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신료 인상은 호시탐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국영방송화’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계가 주목하는 공영방송으로 BBC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BBC와 블레어총리의 대결은 매우 유명하다. 당시 BBC

수신료 인상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미래사회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정보격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
결국 수신료 인상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파노라마'는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내 대량살상 무기(WMD)의 존재 유무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 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교체를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참전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이러한 내용은 블레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 것으로, 영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블레어의 역공은 대단했다. 법원조차 "완벽하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그 여파로 BBC의 이사장과 사장이 동반 사퇴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 대부분은 BBC의 보도를 믿었다고 한다. 왜? BBC는 늘 국민의 편에서 신뢰를 받는 뉴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방송을 한 번 가져보자는 것이 언론운동진영의 바람이다. 불가능하다고? 아니다. 최근의 KBS뉴스를 보면 기대해볼 만도 하다. 현재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시민 사회와 국가권력, 자본권력 간의 균형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든든한 지지와 지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KBS에 대한 위정자들의 협박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한나라당(당시 야당)이 제출한 수신료 분리징수법안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시 않는 KBS에 대한 협박이고 경고였다. 또 2004년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도 같은 맥락이다. 이법은 KBS를 다시 국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국 의원(문광위)의 '국가기간방송법에 동의해주기만 하면 수신료를 7000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 의원들도 KBS를 결코 믿음직한 파트너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친밀감보다는 무례하게 자신들을 공격해왔다는 섭섭함이 더욱 많다. 이러한 정치권의 평가는 여론조사 '신뢰도' '영향력' 1위와 맞물려 KBS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언론이 특정 사회의 권력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KBS는 절반쯤 국민의 편에 걸어와 있는 것 같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는 힘, 그것은 국민적 관심과 수신료 인상에 있다. ㉠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내 인생의 이모작

김인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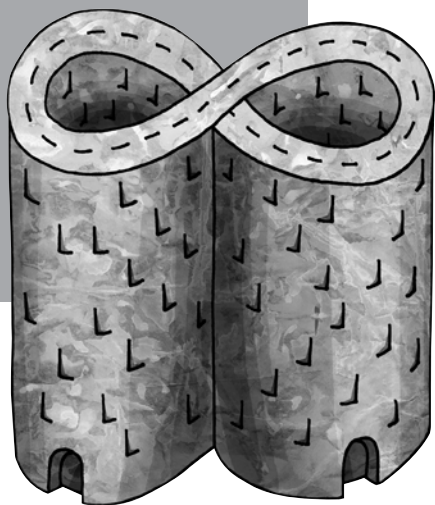
이제 막내가 대학문에 들어가고 나니 집에서 할일이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퇴근해 컴컴한 집으로 돌아가 쓸쓸한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것이 두렵다. 복닥대는 일상조차 변화하기 싫은 이 관성! 하지만 이 기간도 한달 남짓 지나니 슬슬 편안해진다. 이를 걸러 빨아도 넘치던 빨래통이 비어있고 한번 끓여놓은 된장국으로 며칠을 먹어도 양이 그대로이다. 가사일이 줄어드니 한결 여유로운 것이 이 해방감도 싫지는 않다.

인생을 이모작하라던 최재천 선생님의 책제목이 생각난다. 그래, 바로 이 시기가 이모작 준비를 시작해야 할 바로 ‘그 때’ 일거야. 하지만 막막하다.

젊은 시절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만들지 못한 중년여성으로서 이모작을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막막함이다. 그냥 저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말보다 더욱 나를 아득

하게 만든다. 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부추김,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강박으로 올라 두려워진다.

컴컴한 빈집으로 들어가려다 또 친구들에게 문자를 날렸다. 여자 넷이 모였다. 화려한(?) 솔로, 이제 막 이혼을 선택한 이혼녀, 만나고 싶을 때만 보기를 선택한 쿨한 주말부부,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거나 우여곡절이 많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나. 우리의 대화는 연예인 사생활부터 이명박 정부의 운하건설까지 세상사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종횡무진 정신없다. 그러나 언제나 나오는 화제 하나는 있다. 묵직하게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과제, 노후를 어찌 맞이할 것인가이다. 화려한 솔로라는 수사를 붙여주었지만 아이들 과외가 주업이니 비정규직 인사, 이혼으로 구직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친구, 남편의 연금을 위해 심정적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들이니 앞으로 노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제 중 하나다. 오늘도 신나게 떠들다 문득 이모작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 생각났다. 이렇게 수다떨며 만난 친구들, 이들과의 관계 이상 가는 자산이 또 어디 있을까? 은행 통장속의 숫자는 아니나 이 이상의 자산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민우회를 들어와 이 친구들을 만났으니 나는 민우회 문을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이모작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가진 자산이 부족하고 미래는 불안하며 여자를 위한 사회의 벽은 너무도 두텁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다르다. 그때는 혼자만의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답은 없으나 우리 같이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요즘 우리가 모이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삶의 형태, 살고 싶은 집, 앞으로 가지고 싶은 이웃과의 관계들을 이야기 한다. 그러다 같은 동네로 귀농해 공동체를 이뤄 살자는 이야기도 한다. 그럴 땐 모든 시름과 근심이 날아가

고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다과정을 통해 우리는 노후의 우리를 지탱할 철학과 가치관을 가다듬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로 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혼자 독아청청 우아하게 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같이 공동체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생태적인 마을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이어도 좋고 도시에서라도 좋을 듯하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고, 현실이 되길 바란다.

올해 민우회는 복지사업을 모색해 보자 한다. 여성복지 전반을 훑어 보고 노인여성복지를 고민하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니터링하고 바람직한 사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가진 자산이 부족하고
미래는 불안하며 여자를 위한 사회의 벽은 너무도 두텁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다르다. 그때는 혼자만의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업방향에 대해 대정부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모작을 위한 준비 중에 이것도 하나이리라.

내가 만들고 싶은 노후생활의 안정은 지금 시작한 이 사업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고, 시민들과 공동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던 민우회의 활동방식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이모작은 혼자만의 힘 기르기가 아니라 우리의 작업으로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막막함을 벗고 과거의 학력이나, 경제력, 경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민우회 여성운동을 통해 가졌던 경험을 자산으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

김인숙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다' 라던 친구의 말을 지팡이 삼아
평등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다.
나이가 드니 몸만 굳은 것이 아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신선하고 그것이 즐겁다.

오색빛깔 찬란한(?)

‘오빠’의 세계

‘오빠’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종다양한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흘러 나오는 것이 마치 끝나지 않는 마법의 이야기 책을 손에 집어든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짧은 단어 하나에 무엇이 그리 많이 얹혀있기에 그럴까? 이번 기획에서는 ‘오빠’에 담겨진 성별적 권력관계와 불편함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하기’를 넘어, 그 안에 얹혀있는 욕망과 환상, 그리고 그 말과 닿아 있는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풍부하게 드러내 보려 하였다. 자, 오색빛깔 찬란한(?) ‘오빠’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자.

오빠 '오빠' 내 욕망이거나 아니거나

노재윤 ●

오빠라는 호칭에 대해 내가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이란, 관계 안에서 불필요하고 부당한 위계와 권력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공자님 말씀을 먼저 써놓고 나서 좀 찝찝해졌다. 얼마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모 연예프로그램에서 배우 한예슬이 다양한 버전으로 “오빠”라는 말을 던졌을 때,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전국의 남성들은 뒤로 넘어갔다(고 한다). 침대에서 뒹굴대며 티비 채널을 돌리고 있던 나는 뒤로 넘어가는 대신, 티비 앞으로 쏘르르 뛰어나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불편함은 개뿔. 사실 난, 오빠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불러주는 그런 오빠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뭔가 좀 불편하다고 느껴야 정답이 아닐까 생각하는 내

머리와 오빠에 반응하며 뛰어나간 내 몸은 따로 노는 것 같다. 나는 오빠되기, 오빠라고 불리기, 그녀들의 오빠를 은연중에 욕망하고 있는 걸까? 그럴지도. 하지만 오빠를 욕망하는지 아닌지, 어떤 오빠가 되고 싶은지 잘 알 수 없는 나는 어중간하고 혼돈스럽다. 못 박고 시작하자면, 나는 오빠를 욕망하거나, 욕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오빠를 말해야 하지? 알다시피, 이 오빠는 친족관계 내에서 같은 항렬의 순위 남자 형제를 부르는 그 오빠로부터 중년 남성들의 성적 활기를 고양시키는 ‘업소’의 고객관리 전략까지, 두루뭉술한 범주와 다종다양한 맥락과 과잉스러운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나쁜거나 좋은’ 오빠들이 있다. ‘오빠 믿지?’란 쌍팔년도 문장을 읊조리며 욕망에 혈떡이는 오빠, 말을 안 들으면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핑지도 모르는 예비 거부장으로서의 오빠. 친족관계 안의 동생이든 나이가 어린 애인이든, ‘오빠가 해줄게’라고 말하는 믿음직한 반려자, 보호받고 싶은 대상으로서의 그 오빠, 그러나 뭔가 개운한 느낌은 들지 않는 그 오빠들. 어떤 오빠가 됐든, 나이에 따른 성별 구분을 가볍게 넘어서는 동시에, 남성들의 다양한 환상과 욕망이 얹혀있는 호칭이라는 게 공통적이다.

이제 막 안면을 튼 관계에서 “그냥 오빠라고 불러”라는 말은 관계형성의 욕망이다. 개인 간의 만남은 순식간에 나이와 성별이라는 권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관계로 바뀐다. 별 생각 없이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별 생각 없는 반

말로 화답받는 권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오빠란 단순히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위계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기묘한 욕망의 부름이다. 누군가 내게 오빠라고 불러줄 때 느끼는 나긋함과 친밀함과 보호의 욕구, 정신적 보호라는 명목을 물리적 구속이라는 실질까지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는 용인될 것 같은 그 사회적 부름.

오빠들은 이 말랑말랑해 보이는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섹슈얼한 욕망을 꿈꾼다. 이 욕망은 중립적으로 말해 상대를 잠재적인 이성애 연애대상으로, 악의적으로 말해 상대를 손쉬운 연애대상으로 전제하는 욕망이기도 하다. 건조한 호칭인 '선배' 보다는 가족관계의 친밀함을 빌려오는 오빠가 욕망을 실현하기 더 쉽다. 오빠 밥 사줘, 오빠 갑자기 술이 고프네, 오빠 나 저거 사줄 수 있어? 오빠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딱히 불우하지 않은 상대에게 오락과 편의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싶은 오빠들의 욕구는 여기서 생겨난다. 내가 보호자·물주가 된다는 심적·물적 부담감 이전에, 많은 남성들이 이런 환상, 또는 욕망의 단계별 종합선물세트를 쉽게 펼쳐버리기란 어렵다. 이 오빠는 자신의 보호와 배려 따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한다. 나를 오빠라 부르는 너는 언젠가는 '뽀'를 보여줄거지? '기획'을 줄거지? 그래서 오빠라고 불렀던 거 아냐?... 연애중인 많은 오빠들이 '그냥 아는 선배'가 아니라 '그냥 아는 오빠'를 만났다는 그녀의 말에 분노하며 의치증 초기증세를 보이는 건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그 오빠가 나 같은 오빠면 어떡하지? 여기서 의문이 든다. 그럼 누나는 뭐야?... 누나는 오빠와 성별만 뒤바뀐 호칭으로 생각되지만 누나에는 오빠와 같은 욕망의 전제들이 없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은 '누나'라고 부르던 연상의 여성과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호칭을 버린다. 성별화된 연애의 성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오히려 한 노래 가사는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지마"라며, 누나를 연애상대로 삼고 싶다면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굳이 '너'라고 부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누나라는 말은 같은 계열의 호칭이라도 실재하는 성별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셈이다.

사실 오빠는 권력이되, 상호교환의 논리가 교묘하게 얹혀있는 권력이다. 이 권력은 일방적이지 않다. 오빠라는 호칭 안에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면서 성별로 갈리는 관습적인 태도와 기대가 있고, 이 호칭을 놓고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욕망을 다양하게 투사한다. 불리는 이는 호명하는 쪽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줘야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오빠대접'과 '오빠노릇'의 상호 교환 관계. 이걸 잘만 하면 공정한 게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 물론 아니다. 게임의 룰은 애초에 오빠와 그 오빠의 아빠들이 만들었고, 게임은 그 안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말하는 오빠는 오빠-아빠로 이어지는 문화권에 안락하게 정착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여성이 말하는 오빠는 의지와 상관없는 생존의 수단





이기도 하고, 이 둘은 종종 겹쳐있다.

그러나 오빠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권력에 상응하는 의무를 잘 알고 있다. 그 의무는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가부장이나 모성 이데올로기 속의 엄마처럼, ‘잘 모르겠지만 웬지 그래야 할 것 같은’ 의무다. 어렸을 때 허구한 날 ‘야! 라고 부르던 동생이 결혼을 하고 어느날 갑자기 나를 오빠라고 부를 때, 선택하는 호칭에 익숙하던 그녀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다가올 때, 밀려오는 애뜻함과 웬지 모를 책임감. ‘오빠노릇’ 또는 ‘오빠다움’의 굴레는 그런 식으로 씌워지고, 그렇게 오빠는 스스로의 역할을 단순한 ‘손윗사람’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래서인지 책임감이 출중한 많은 오빠들이 ‘나’라는 표현 대신 ‘오빠가...’라는 자의식 넘치는 표현을 쓰곤 한다(그리고 이 표현은 남성들의 세계에서 애뜻하게 사용되는 ‘형이...’라는 표현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이쯤에서 스스로 태클을 걸게 된다. 그런 오빠들의 맥락만 있는건 아니잖아? 나름대로 평등한 관계에서 무성적으로 사용되는 편의상의 호칭일 때도 있잖아?... 물론 그렇다. 오빠는 그 자체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정서와 논리, 그 진부한 권력관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거나 여러 갈래로 강화하는데 유용한 호칭이지만, 늘 그렇지 않다. 당신이 누군가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불평등한 성별관계를 터무니없이 묵인하거나 그에 안주하게 되는걸까? 당신이 오빠라고 불리길 기대한다고 그저 느끼

한 마초인걸까? 호칭이 가지는 불평등한 맥락들과 실제하는 관계, 또는 정체성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어떤 오빠들은 그 호칭으로 나눌 수 있는 다른 정서와 관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이 호칭에, 나이주의나 성별 권력관계를 전제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런게 있다고 치고) 좀 더 긍정적인 욕망들이 투여될 수 있다면 어떨까? 너무 순진한가? 난 오빠가 가지는 함의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달콤한 권력의 일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걸까?... 분명한건 오빠를 둘러싼 생각, 성찰, 고민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반응하는 오빠의 의미와 맥락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금씩 탈각하게 만든다는거다. 물론 그 완전한 탈각은 오빠 밖의 다양한 권력관계들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거나 전환될 때 가능하고, 그럴 때 오빠는, 역설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호칭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 없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하자. 나는 당신에게 오빠를 욕망하는 동시에 욕망하지 않는다. ㉞

노재운 ● 원고 질리게 늦게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노무...아니 2MB 때문이지만,
올해는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빠’가 뭐길래?

달마 ●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때, 갓 들어온 새내기 여자후배들이 내 동기들에게 “오빠, 오빠”하는 모습을 내가 얼마나 가당찮고 또 어이없게 생각했던지, “오빠”라고 한번만 불러달라던 한 해 목은 같은 과 동기의 장난질을 어떻게 간단히 무시했는지에 대해서도 굳이 말하지 않으려 했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내 인생의 기조가 불가피하게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음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빠라는 말은 나에게 여전히 낯설고 간지럽다. 뿐만 아니라 오빠라는 호칭앞에서 좋아죽는 남자들을 불러치면 그 장단에 흥을 맞춰주는 여자들이 밍살맞기까지 하다. 그러나, 징그러 죽겠어서 입에 담기 싫은 그 말을 내가 밥 먹듯이 해대던 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의 시장선거를 도와야했던 바로 그 비굴모드 기간이었다.

2002년, 20대 중반을 갓 넘긴 나는 아빠의 선거캠프에서 정책 및 조직관리 업무를 맡았다. 조직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 조직을, 선거를 치러야할 동네는, 내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중고등학교를 모두 타 지역에서

다닌 덕에 지금껏 연락이 닿는 친구들은 전혀 없었다. 그런 선거판에서 젊은 조직을 새로 만들고 꾸리려고 하니 당체 좋은 방법이 없는 터, 지역에서 초중고시절을 보낸 ‘오빠’들의 도움이 절실했다(‘언니’들은 선거에 별 관심이 없었다).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몇몇의 ‘오빠’를 시작으로 이 ‘오빠’들이 소개해준 지역에서 꽤 활동이 왕성한 다른 ‘오빠’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 ‘오빠들’의 모임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지역모니터링 명목으로 만나 주제 토의도 하고 술도 먹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다. 급박하게 굴러가는 선거판에서, 이 ‘오빠들’의 역할은 컸다. 학교 동창들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동창모임에서 내 아빠의 정책(오빠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했다. 지역 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를 빌려줬으며 단체 메일 디자인은 물론 단체발송 프로그램도 짜줬다. 힘쓰는 일이 있을 땐 와서 도왔다. ‘오빠’는 친밀감 형성을 넘어 내 성(여성-여동생)을 십분 활용하는 유용한 도구였으며 오빠들은 여기에 순순히 응했다.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동네에서 이 정도의 성과는 가히 놀랄만한 것이다. 불과 한달만에 말이다.

가끔 돌이켜 생각해본다. 나 스스로 유용할 것이라 여겨 선택했던 전략적 호칭, “오빠”. 이 “오빠”가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다소 회의적이다.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그 조직이 남지 않았



‘오빠들’에게 여전히 내가 ‘여자-동생’인 이상 나의 영향력은 동생의 범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친해지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친밀감은 상하위계(오빠-동생)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수도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진지해질 수도 없다.

다는 점이다. ‘오빠들’에게 여전히 내가 ‘여자-동생’인 이상 나의 영향력은 동생의 범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친해지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친밀감은 상하위계(오빠-동생)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수도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진지해질 수도 없다. 진지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관계로의 발전일 뿐. 연인 혹은 나에 대한 짝사랑? (실상 그렇기도 했다. 선거기간 동안 나는 그 오묘한 줄타기를 해야했다. 어떤 한명의 오빠에게만 집중하거나 관심을 표명해서는 안된다. 다른 모든 오빠들에게 여지를 주며 내 성을 팔며, 나는 이렇게 외쳤다. ‘선거야 선거야 빨리 빨리 끝나라...’) 그런 마당에 굳이 이 조직을 선거후에도 유지해서 지역의 젊은 조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고 관리하고픈 욕심이 나에게도 없었다. 나는 솔직히 ‘오빠’들과의 의견대립을 뚫고 나갈 힘도, 의지도, 방법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오빠들 중에 살아남은 이가 있었으니, 다름아닌 잔소리쟁이 내 남편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처음 그 둘이 어떤 관계였느냐가

제법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빠”로 처음 호칭을 시작한 탓에 남편은 지금도 오빠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결혼 후, 왜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오빠”라는 말을 당신을 만날 당시(선거운동 당시)에 남발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 설명하고, 하여 호칭을 ‘남편’으로 분명히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때가 ‘그립다’고 징하게 우긴다. 삶의 파트너로서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온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오히려 나이는 방해막임을 (그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미리야’라고 부르고 싶어하며 ‘오빠~’라고 부름당하고 싶어한다.

남편에 대한 호칭은 쉽게 정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때 당시 만난 ‘오빠들’에 대한 호칭이 변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호칭을 바꿀 기회도 시간도 필요도 없던 탓에, 가끔 마주치기라도 할 땐 호칭을 ‘오빠’라고 해야하니 여간 어색하고 꺼림직한게 아니다 (더욱이 그 ‘오빠들’에게서 내가 더 이상 뿔어낼 것이 없지 않던가).

처음 만날때의 호칭은 관계의 성격을 좌우한다. 호칭이 바뀌지 않는한 그들과 나의 일대일 파트너십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들이 나의 ‘오빠’이고 내가 그들의 ‘여자 동생’인 한 말이다. **달마**

달마 ● 봄벌을 담은 미소,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소리가 예쁜 민우회원.

오빠사전 · 오빠X파일

「오빠」에 대한 숨겨진(혹은 다아는) 진실! 「오빠」를 낱말로 파헤친다!!

오빠사전

#오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 또는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순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는 말.

오빠아닌 오빠X파일

#모범 오빠, 환상 속의 오빠

동요 '오빠생각', 대중가요 <홍도야 우지 마라> 등의 노랫말에 등장하는 오빠들은 여동생들의 로망. 누이동생은 애뜻한 마음으로 오빠를 의지하고(우리 오빠 말타고 서울 가시며/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오빠는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누이동생을 위로, 숨이불처럼 포근하고 바위처럼 믿음직한 이 오빠들이 못여성들의 뇌리에 "세상의 나쁜 녀들과 위험에서 날 지켜주는" 환상속의 오빠로 콕 박힌.

여동생을 보호하려다 나쁜 놈을 죽이고 감옥으로 가는 오빠(영화 <아리랑>)는 비록 광인이지만 영웅. "꽃꽂하기가 대나무 같고 빈틈이 없던 오빠", 동생들 학비를 책임졌던 오빠가 오십이 넘어 걸린 중년우울증에 안쓰러워 눈물이 핑도는 여동생(양귀자<한계령>)도.

내 맘대로 뽑은 업그레이드 모범오빠는 불운한 천재 누이동생 허난설헌의 시를 중국에까지 열정적으로 전파,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린 오빠 허봉. 따라서 허균은 '모범 남동생'. 누이동생의 자유로운 사고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오빠야말로 환상속의 오빠.

#찌질이 오빠, 권위적 오빠

오빠는 풍각쟁이야 머 오빠는 심술쟁이야 머
난몰라이 난몰라이 내반찬 다 뺏어 먹는거 난몰라이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구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구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각쟁이야
오빠는 트집쟁이야 머 오빠는 심술쟁이야 머
난싫여이 난싫여이 내편지 남몰래 보는것 난싫여이
명치좌 구경갈땐 혼자만 가구 심부름 시킬때면 엄병땡하구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오빠는 주정뱅이야 머 오빠는 모주꾼이야 머
난몰라이 난몰라이 밤늦게 술취해 오는것 난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하구 월급만 안 오르다구 짜증만 내구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 1930년대 가요, 가수 박항림

풍각쟁이, 모주꾼, 술주정뱅이, 짜증쟁이, 트집쟁이, 대포쟁이... 온갖 안좋은 표현은 다 등장하는데도 애교스럽게 들리는 건 간드러진 창법의 여성가수가 부른 1930년대 노래인 까닭? 찌질이 오빠의 민폐버전이 7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놀라울 뿐. 찌질이 오빠 만큼이나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건 부권을 대신해 여동생과 누나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오빠(오정희, <유년의 뜰>). 두 유형의 공통점은 여동생에 대한 통제가 극강이라는 것. 이 두 오빠들이 개선된 사례 제보바람.

#막가파 오빠, 핑포지존 오빠

세탁기에서 열 네 살짜리 여동생 팬티나 훔치며 온갖 변태 짓을 일삼다 가출, '뭇생긴 미성년자 동거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때리는 패륜아 오빠(김영하, <오빠가 돌아왔다>), 여동생을 톡하면 때리고 부잣집 남자에게 팔아넘기려는 파렴치한 오빠(드라마 <가을동화>).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한 오빠들 즐비. 이 오빠들이 개과천선했다는 사례 제보바람.

#아리송 오빠

아기는 여동생을 서울 법대 출신 남자와 결혼시켜 패밀리리 가방끈컴플렉스를 해소하고, 조폭 쓰리제이가의 신화를 완성하려 수단방법 안 가리는 세 오빠 공갈브라더스(영화 <가문의 영광>)는 어느 쪽 오빠에 끼워 줘야?

#지구인으로서 악몽인 오빠

가문에 먹칠했다고 여동생을 명예살인하는 오빠들.

오빠 아닌 오빠사전

1.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여성이 친밀하게 이르는 말. '이쁜' 여자들이 이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며 정신이 멍해져 뭐든 다 해주고 싶다는 남자들이 있음. 때문에 가깝지 않은 남성에게도 이 호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여성들도 눈에 띈.
2. 여성이 자신의 애인, 남편을 이르는 말. 대체어로는 '자기', 관계가 악화될 경우 '야', 'OO'란 욕설로 돌변하기도 함.
3.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등 남성 대중스타를 여성팬들이 이르는 말. 할머니팬들도 어린 스타를 오빠로 부를 수 있음. 이 오빠들은 여자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절대지존. 때론 존경의 뜻으로 오라버니란 호칭을 쓰기도.

4. 일부 서비스업에서 여성종업원, 또는 트랜스젠더들이 남자손님을 이르는 말.
5. 유흥업소의 여성이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자신을 관리하는 업주(모주)와 펌푸(기동서방, 호객꾼)를 이르는 이름.
6. 이밖에 여성들의 맘이 가는데로 때와 장소와 나이에 상관없이 수많은 오빠들이 탄생하는 중. 세계 어느 곳에도 오빠라는 호칭이나 지칭을 이토록 광범위한 의미로 쓰는 곳은 없음. 있다면 제보 바람.

파생어 : 오빠부대(여성팬덤), 빠순이(여성팬 비하). 빠돌이(남성팬 비하) 등. 나돌이(누나돌이)가 아니라 왜 빠돌이인지 는 알 수 없음.

사투리 : 오라방. 오라버니의 제주도 사투리이나 요즘은 인터넷 게시판과 채팅방, 현실에서의 뒷담화 등에서 두루 쓰임. 오빠라는 호칭이 왠지 낮간지러워 이 말로 대신한다는 여성도 있음.

변형어 : 옴파, 옴빠. 오빠를 장난스럽게 이르는 말로, 주로 인터넷에서 통용됨.

오빠 아닌 오빠X파일

'여동생 아닌 여동생'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선고까지 받는 지고지순한 오빠(<남자의 향기>), 완벽한 오빠노릇과 연인역할을 모두 수행하다 연인/여동생인 은서가 백혈병으로 죽자 따라 죽는 준서 오빠(<가을동화>). 대신죽고 따라죽는 이 오빠들이야말로 오빠 아닌 오빠판타지의 겁나는 백미. 그러나 현실에선 순정파 오빠들이 씨가 말랐는지 <오빠 나만 바라봐>(왁스), <오빠 미워>(자밀라)같은 노래도 나옴. ㉠

이오 ● 영화 <추격자>를 보다 출장안마사 미진이 업주 엄중호에게 전화로 "오빠,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 일을 못나가겠어요" 통사정했을 때 갑자기 멍해지더라. 그래, 저럴 때도 오빠라고 하는구나...

1994년-2000년, ‘열린가족 이야기한마당’ 속으로

유경희 ●



1996년 열린가족·열린음악회축제

민우회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의 이름으로 ‘가족’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것은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것이었다. 가족 내 평등한 관계, 다양한 가족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는 민우회의 ‘가족’ 이슈의 핵심은 가족 내 민주화, 가족간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의식과 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가족’ 담론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욱 유효한 과제인 것이다.

1994
-
1996

평등·민주적인 가족 문화 우리가 만든다!

민우회 동북지부(서울, 1992년)창립 당시 지역여성의 일상적 삶을 주제로 한 운동과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 가족생활에서의 성별분업적인 형태에서 나타나는 남녀차별·부모자녀간의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이는 의식과 문화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가족 내 권위주의, 부계중심 가족생활, 남녀차별과 같은 가부장적 가족문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공감대를 얻었고 실천운동으로 연결되었다. 1994년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기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가족구성원간의 민주적 관계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지역의 민우여성학교 참여자들과 활동가들은 가족 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에 대한 소박한 토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것이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 출발의 배경이 되었다.

본부로 연결된 첫 번째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에서는 가족체험수기 발표와 평등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부 24계명이 공유되었다. 당시 회원들은 부부·부모자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그들의 실천과 바람의 목소리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레임과 부담스러움이 공존하는 긴장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희망을 담은 부부 24계명은 책으로 구성되어 확산되었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열린가족축제



1995년 가족과성상담소 개소 이후 이어진 2회 ‘열린가족 이야기한마당’에서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주제로 부부간의 대화, 성적 의사소통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실제 부부들과 전문가의 솔직하고도 진솔한 대화는 참여자들의 귀를 열게 하였고, ‘그래, 그렇지’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당시 여성노동센터 주관으로 이루어진 ‘맛벌이 부부 10계명’ 지침서와 가사노동분담 수첩은 실제적 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고, 새로운 혼례문화 만들기를 위한 활동 또한 가족 내 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1996년 3회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은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를 주제로 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신, 부모, 학교와 사회에서의 건강한 성의식과 성문화를 위한 각각의 10가지 수칙¹⁾을 만들어 알려내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성적주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 가족 내 청소년 자신, 청소년 자녀의 성의식에 대한 이해, 학교와 사회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성적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한마당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시도였다.

1997
-
2000

민우회, 한부모가족 운동의 실천에 나서다!

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개소 이후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외도와 폭력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이혼절차 문의, 이혼 후 재산분할,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의 현실성 등 ‘이혼’ 관련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혼 후 생존의 문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심각한 상황임에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대상에 머물러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알려내고, 상담과 교육·법과 제도 등의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활동이 요구되었다. 한부모 여성들에게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이혼 후의 삶의 안정을 돕는 장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우

1) 청소년 수칙의 예 : 성중동을 느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폭력 행위임을 깨닫는다.

부모수칙의 예 : 자녀의 질문에 편견을 주거나 숨기지 않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자녀가 성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갖는다.

학교와 사회의 수칙 예 : 성교육을 인간교육 측면에서 교과목에 넣고 성교육전담교사제를 만든다. 성을 감추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열린가족축제

회는 ‘가족’ 영역의 활동을 한부모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공론화!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된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 행사는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공론화 장(場)이었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문화에서 배제되고, 복지 수혜 대상으로서의 한부모가 아닌 주체적인 여성한부모 운동을 만들고자 하였다.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존중, 한부모가족의 현실과 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한부모가족의 유대 강화와 당당하게 세상과 만나기의 작업들을 함께 해 나갔다.

정서적 교류의 장에서 지지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1997년 5월,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 - ‘새로 짓는 우리집, 한부모가족²⁾의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을 마련하였다. 당시 참여했던 한부모들은 스스로 사회적 편견과 현실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자녀 양육과 새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80여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에 놀라고, 비공식적인 행사로 준비했음에도 MBC 기자가 출현하여 당황한 한부모들이 자리를 뜨는 상황이 벌어지고, 설득하여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시 그 장(場)을 추스렸던 기억들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날 이후 한부모들의 정서적 나눔, 정보제공의 장인 서로 돕기 모임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민우회 한부모 활동에의 주체로 함께 할 수 있었다.

1999년 민우회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인식 및 욕구조사’에서 ‘한부모’라는 대안 호칭을 만들게 된다. 단독부모, 싱글마더, 한부모 등의 대안호칭 중 하나라는 의미와 함께 ‘한가위’, ‘한강’에서처럼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의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 ‘한부모’가 채택되었다. 한부모들은 욕구조사의 질문에 다양한 경험담을 쏟아 놓았고, 희망사항을 풀어놓았다. 당시 욕구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한 140여명의 한부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스스로 주체자로서의 말하기를 시도한 ‘우리들의 선언’은 가슴 찡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2) '99년 이전에는 편부모라는 용어로 행사명에 남아 있고, '99년 '한부모' 용어 만든 이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기별 구분 없이 한부모로 쓰고 있다.

한부모가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자!
나의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감을 갖자!
어려울 때는 주위에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자!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 즐겁게, 당당하게 살자!

우리들의 선언, 1999

또한, ‘난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세상’ - 사회, 학교, 정부에 바라는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나도 한마디’ 영상을 통해 한부모들의 욕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누구나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자.
결손가족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자. 모든 가족은 정상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자녀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바라보는 편견에서 벗어나자.
교과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하자.
호주제를 폐지하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및 상담체계를 지원하고 제도화하라.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세상- 사회, 학교, 정부에 바라는 제안서, 1999

단한 가족의 빗장을 열자

2000년 6월 여해문화공간에서 열린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은 ‘이제 단한 가족의 빗장을 열자’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었다. 활동가와 한부모 모두 신나는 마음으로 축제의 장을 기획하였다. 독신여성, 남매와 함께 사는 이혼 한부모 남성, 두 딸과 함께 사는 이혼 한부모 여성, 엄마와 사는 15세 딸,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비혈연공동체 가족이 이야기 손님이었다. 가수 박진영과 신형원이 분위기를 띄워냈고, 마지막 무대엔 민우회 한부모 서로돕기 모임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는데 가슴 찡한 호응과 열띤 박수가 터져나와 모두 흥겨운 감동을 나누었다. 행사 참여자들에게 국내·외의 다양한 가족 및 서로돕기 모임 소개, 새로운 자녀교육, 가족 관련 단행본과 자료집 전시, 인터뷰 비디오 등이 소개되었다. 혈연/ 혼인/ 이성애 중심/ 비장애 라는 틀을

‘정상’이라 인식하는 단한 가족의 빗장을 열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기억된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한해의 끝자락에 한부모가족과 함께 한 힘내기 한마당 또한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의 장으로 이어갔다. 한부모들 스스로 준비한 바자회, 가족과 활동가들의 공동체 놀이, 작은 따뜻한 선물들, 푸짐한 삼겹살 파티에서 만났던 격의 없는 친밀감, 시끌벅적한 웃음들은 행복이 이런 것임을 알게 해 준 이벤트였다. 민우회가 한부모 운동을 펼쳐나간 방식은 ‘열려라! 한부모세상 만들기’를 위한 과정이었다. 한부모를 주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역량을 키워내려는 것이었다.

새로운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을 상상하며

근대적인 핵가족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는 ‘위기’며 ‘해체’가 아닌 ‘새로운 구성’이다.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생산과 돌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가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우회가 수년 동안 ‘열린가족이야기한마당’이란 장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가족’에의 목소리는 “가족구성자의 자유와 존중” 그리고 “더불어 살기”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경험에 기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살기’에 대한 실천의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족 내, 가족 간을 포함한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깨어있는 성찰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차별 감수성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며, 가족 전체의 변화를 꿈꿀 수 있게 한다. 소통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생 공동체로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경계를 넘어서는 인식에서 함께하는 실천이 시작될 수 있음이다. ¹⁾

유경희 ● 파릇한 은행나무 잎이 돋아나는 정동 길을 걷고 싶은 생기

새로이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학창 시절 세계사 시간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운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할 줄이야. 어쨌든 운하라는 이 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하가 건설되면,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을 터이니. 한 가지 미리 얘기해 두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 운하를 연구했다는 100명의 찬성 측 학자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운하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여기서는 복잡한 건 접어두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 해 보자. 운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만큼 운하 건설 측의 주장은 가소롭다.

운하는 주로 배의 운항을 위해서 만든 인공 수로이다. 즉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배가 다닐 수 있게 땅을 파내어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다.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서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운하 구상에 이어 우리나라의 식수원이자 주요 강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을 연결하여 한반도 전체에 내륙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남한에 12개 2,100여km, 북한 쪽에 5개 노선 1,000여 km 등 총 17개 노선 약 3,100km를 총칭하여 한반도 대운하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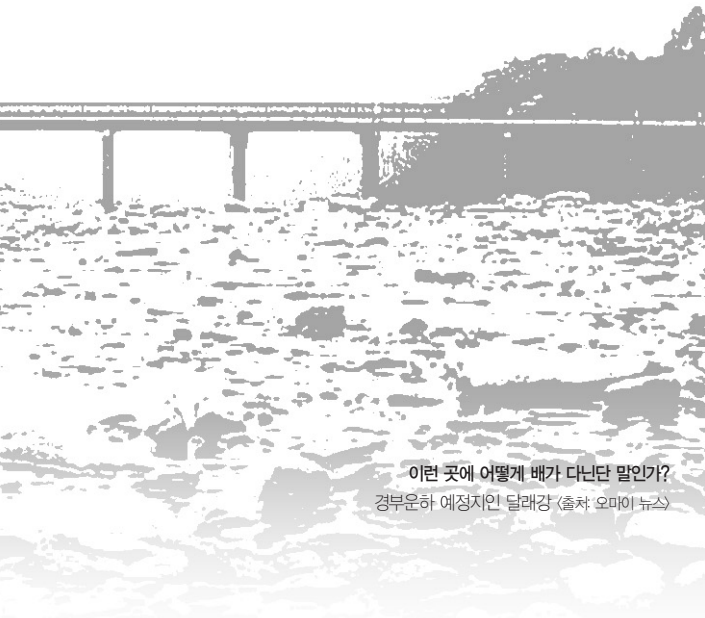
운하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대륙이 넓은 지역으로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운하가 없는가? 운하가 발달했던 유럽의 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평지이며, 독일의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수심도 깊고 유역 면적이 넓다. 라인강은 한반도 면적과 같고 도나우강은 한반도의 2배 크기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

운하, 왜 하니?

권범철 ●

지이다. 게다가 수심이 얇고 비가 적게 올 때와 많이 올 때의 차이가 크다. 간단히 말해서 배가 다닐 수 없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길만 이어주는 작업이 아니라, 모든 강바닥을 파내고 암반 지대의 굴착을 통해 직선화시키는 제방 공사다. 배가 지나가는 모든 강을 완전히 개조하여, ‘초거대 콘크리트 옹벽 수로’로 바꾸는 것이다. 명심하시라. 그냥 강물에 배 띄우는 게 아니다.

가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찬성 측 주장 중 하나는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배 띄운 물의 수질이 좋아질 리가 있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화물선은커녕 나룻배도 못 띄우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찬성 측 학자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운하를 건설하면 물이 정제되어 물이 썩는다는 의견에 “배의 스크루가 돌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펼쳐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진작 알았다면 수질 개



이런 곳에 어떻게 배가 다닌단 말인가?
경부운하 예정지인 달래강 (출처: 오마이뉴스)

선을 위해 지난 13년간 4대강에 28조 6천억원(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0조원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지 않고 유람선이나 몇 척 더 띄워 지금쯤 한강 물 그냥 사발로 퍼 마시고 있었을 텐데, 우스운 것은 운하 건설이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거나 간접취수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배 띄워서 수질이 좋아진다면 왜 취수원을 옮기거나 취수방법을 바꾸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선박이 사고라도 난다면 문제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10년간 선박 사고가 매년 평균 500건이나 된다.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사고가 나는 셈이다. 유럽은 주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흐르는 강물이 식수원의 70%를 차지한다. 먹는 물에 배 띄워서 사고 나면 우리는 무얼 마셔야 하는가? 한강과 낙동강은 3,0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식수원이다. 어른들 말씀대로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리고 찬성 측은 운하가 향후 증가할 물동량에 대비한 물

류혁명이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운하로 옮길 집, 없다.** 지난 1월 대운하의 주요 고객이 될 국내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운송업체(화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겨레, 2008. 1. 14)에서 **76.7%의 업체가 대운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운하가 생긴다 하더라도 56.6%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운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그나마 나머지 36.6%의 대답은, “그때 봐야야 한다”. 그때 가서 이용안하면?

그래서 들고 나온 비책이 있다. 바로 ‘관광운하’. 운하노선을 따라 관광레저 지구를 개발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크루즈 관광을 한다는 것이다. 찬성 측 말을 빌리자면 “운하는 관광소득을 증가시키는 21세기형 SOC”이다. 그러나 이는 물류운송을 위한 사업이 관광산업으로 변질된 것으로, **이야말로 운하건설의 경제성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관광레저 지구 개발이 정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개발업자, 건설자본의 **매만 불러주지 않을까?**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유럽에 운하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유럽에 운하 구경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나마 겨울철에는 운행하기도 어렵다. 운하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가득어 두어야 하므로 열기 쉽다. 찬성론자들이 운하 선진국으로 모시는 독일의 경우, 운하가 얼어 3개월 동안 운항을 하지 못한 적도 있다. 운하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스케이트장 입장으로 수입이 될 것이다. 스케이트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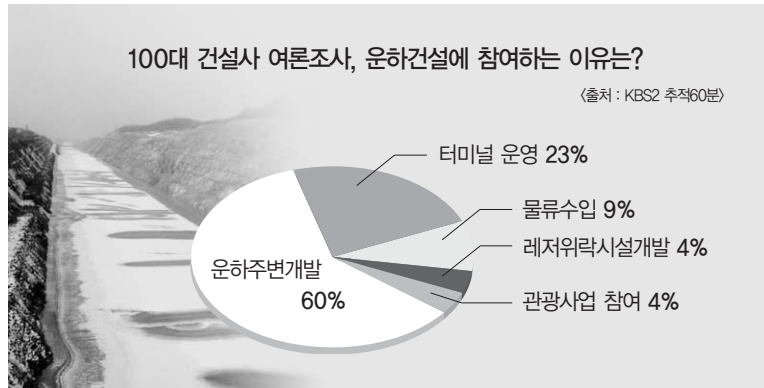
겨울엔 운하를 놀린다 치더라도 여름엔 그 자체로 재앙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름, 비 제법 쏟아진다. 현재 한강

● 쟁점과 현안

상류에 있는 댐들은 홍수가 오기 한 달쯤 전에 물을 방류한다. 그래야만 홍수기에 물을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하를 건설하면 한강과 낙동강에 댐을 추가로 지어 물을 채워야 한다. 배가 다니기에는 수심이 너무 얇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의 운항을 위해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여름이면 늘 홍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찬성 측은 홍수

가 오기 전에 이 댐들의 물을 모두 방류하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배는? 당연히 못 다닌다. 배 다 나라고 가둔 물을 모두 방류해버렸으니 배가 걸여가지 않는 이상 다닐 방도가 없다. 겨울엔 얼어서 못 다니고, 여름엔 홍수 나서 못 다니고, 배는 언제 다니나? 물류혁명의 꿈은 멀어져만 간다.

이런 운하, 도대체 왜 하려하는 걸까. 이제는 정말 궁금하다. 누구라도 이득 보는 이들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KBS2 추적60분, 2008. 2. 13)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물류수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에서 건설사의 91%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정부운하 건설에 참여할 것인가란 항목에서는 80%의 건설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설사가 이 땅의 물류혁명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속셈은 뻔하다. 그것은 바로 운하주변 개발권 확보이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운하건설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운하주변 개발권 특혜 등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인운하 예정지인 인천 굴포천 방수로 공사 지역. 전 공사 구간이 얼어있다. (출처 : 환경정의)

보전해준다? 그 말은 당신이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준다는 말과 같다. 운하 건설을 하게 되면 국민 1인당 50만원이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 요컨대 100% 민자로 추진한다는 말은 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100% 보장해주겠다는 말과 같다. 개발은 막대한 투기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다.

자, 이제 운하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운하는 전국의 강을 콘크리트 옹벽 수로로 만들어 개발업자, 투기꾼, 지주들의 배를 불러주는 사업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의 생명체와 역사를 죽이고, 마실 물을 더럽히고, 홍수 피해를 감수하면서 운하를 꼭 지어야 하는가? 아직도 운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운하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흥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다. 수많은 반대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언제나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떠드는 그 입, 이제 그만 좀 다물라. 그 '나라'에 아마도 나는 없을 테니... **앰**

권병철 ●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활동가

범죄를 멈출 수 있다면 ‘치료’를 바라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 ●

성폭력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자들의 전화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민우성폭)는 살짝 긴장상태가 된다. 질문은 성폭력의 발생 원인부터다. 성차별적인 질서, 남성중심적이고 왜곡된 성문화, 위계적이고 권력적 구조, 폭력에 허용적인 문화 등이라는 대답이 웬지 겹돌고 원하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부담되기 시작한다. 질문이 이어진다. 아동과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자신(가해자)의 통제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발휘되는 사람과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다? 허걱. 원인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여성에게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사회,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리어 책임을 운운하는 통념과 분위기, 앞날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위치(감독, 교수 등)에 있는 사람에게 맞서봤자 해결은 안 되고 나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 등 피해에 대해 입을 막게 하니 어

쩌면 재범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사회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가해자는 더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이런 대답 역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숨송 통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엔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원인을 알았다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이나 문화 변화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역시 제대로 안 먹힌다. 사람들은 뭔가 세고 강하고 확실한 대책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자 신상정보의 지역주민열람제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일명 전자팔찌) 등 ‘안전’을 위한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민우회에게 찬성이나 반대이냐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원한다. 찬/반이 아닌 대답은 ‘정답’이 아닌 그 질문은 역시 매번 불편하다. 그런 와중에 최근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치료감호법」이란 심신장애, 마약,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호(감독하고 보호한다는 뜻)하며 치료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법무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치료감호의 대상에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즉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性的)인 장애를 지닌 성폭력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병과주의’ 적용의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병과’란 쉽게 말하자면 징역형이 끝나고 난 뒤, 즉 형을 살고 나온 후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개정안 상 최대 7년)을 또 가지는 것이다. 현재 치료감호법에 명시된 심신장애,

마약, 약물중독 상태 범죄자에게는 대체주의 방식(치료감호를 받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연쇄성폭력, 성추행 후 살인, 유기사건 등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특단의 대책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 듯하다. 하지만 현재 법 상의 치료감호 대상자들과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건이 같음에도 성폭력법에 대해서만 다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앞에서 말한 성폭력으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찬/반 물음에 대한 불편함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또 병과주의는 형 집행이 끝난 이후에 또 사회와 격리시켜 '감호'의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이중처벌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니 형벌에 병과 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같은 논리로 합헌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우리도 아마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성차별적 문화, 왜곡된 성인식 등 성폭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변화 모색 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정책과 법을 경쟁하듯 내놓는 것에 대한 우려 점은 있다. 그러나 많은 논란으로 개정안 전체가 폐기되기 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게는 치료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방치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 조치인 치료를 받고 낮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지만 고민이다. 가장 먼저, 성폭력 가해자는 회사원, 국회의원, 교사, 교수, 신부, 목사 등 신분과 교육정도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정책과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조차 의식과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개정안 논의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

둘째, 정신성적 장애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혹증 외에 관음증, 접촉도착증, 노출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들의 정신이상 여부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의문이 강하게 든다. 전문의의 판단의 문제일 수 있으나 '성적 장애'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회

민우성폭은 97년부터 개인 및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의 집단
가해자교육을 진행, 한 해 약 40여명의 가해자들을 만나 왔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고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40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가해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며 지속하고 있다.

의 성문화, 성적 도덕기준, 상대적인 가치가 개입되는 '성
적' 인 문제를 어떻게 장어로 진단할 수 있을지 말만 들어
도 고민스럽지 않는가.

셋째, '장애' 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가해자에게 어떤 의
미인지 고려하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성폭력
상담을 하며 느끼는 '술' 에 얽힌 답답함으로부터 시작됐
다. 성폭력 가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아 심
신상실자(심신장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로 인정, 감경 되
는 예가 너무 많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동안은 의사무
능력자(책임무능력자)라는 이유이다. 이런 사례는 늘리고
늘렸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며 형이 감경되지도 않
는다는 형법 10조 3항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
처럼 '술' 은 다 통하고(?) 있다. 이러니 정신성적 장애 진
단이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의심과 함께 정확한 진단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갖기 힘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에 한 표를 던지는 이유는 그 목적
이 '치료' 라는 점 때문이다. 민우성폭은 97년부터 개인 및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의 집단 가해자교육을 진행, 한 해 약
40여명의 가해자들을 만나 왔다. 성의식 변화, 성폭력에 대
한 이해, 잘못된 통념 깨기, 성적의사소통 등의 인식을 변화
시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고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함
이다. 40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
우나 그럼에도 가해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며 지속하고 있다. 이렇
게 사족과 같은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범죄의 내용이나 죄
질을 보아(이 역시 분명하지 않은 판단이긴 하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육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고 판
단되는 가해자가 분명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그리
고 이 경우 교육 대상자에서는 일단 제외, 가해자의 의지가
있어 신경정신과로 연계를 고민할 때도 있으나 그것도 아
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없다.

가해자교육이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성폭력 범죄 예방
책의 다각화 방안으로서 치료, 의료적 조치를 고려해야하
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 징역형 이후
'감호' 가 아닌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근 치
료의 의무화 등 이중처벌의 소지를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주먹구구식 생
색내기 정책과 법이 아닌 목적이 '치료' 에 있다면 그에 부
합하는 내용과 조건, 환경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한**

이임혜경(오이) ● 소모임 못 가고, 원고 늦고, 뽕구 내고,
사람들과 놀지도 못 하고, 일에만 파묻히고... 이걸 아니지 싫습니다.
봄 햇살이 좋은 날, 책상 위 쌓인 자료들부터 치워 볼까요?

지난 연초, 다들 바쁜 와중에도 개의치 않고 '해쳐 모여' 하며 지난 우리의 저력을 다시금 과시하긴 했으나 너무나 아쉬운 짧은 만남이었어요. 95년부터 5년 이상 매주 한번씩 생협공동체를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 간 이후, 3년 반만의 만남이라 서로들 참 할 얘기도 많았건만 반가운 소식만 주고 받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죠. 엇그제 인숙 선생님이 전화로 이 글을 부탁했을 때 사실 그 때 못다한 얘길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전화로 지금 한국은 3·8 행사로 바쁘다고 했는데, 이곳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천여 명의 여성들이 플랭카드를 들고 거리 시위하는 사진이 일간지에 실렸더군요. 이런 류의 연례 행사로서는 북미에서 최대 행사라고 하면서 짙막한 인터뷰 기사도 실렸는데, 특히 폭설에 추운 요즘의 이곳 날씨를 감안할 때 남

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들의 열정에서 우리 민우회 회원들의 활동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곳 캐나다는 그야말로 다민족의 집합체라 할 정도로 해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며 기존의 백인 위주의 사회 색깔을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지향 정책으로 미국과는 달리 각 민족의 색깔을 존중하는 터라 여기저기서 동시에 최소 서너 개 이상의 외국어를 동시다발적으로 듣게 되는 게 예사죠. 물론 이 곳 토론토 시는 영어가 공식언어로 되어 있건만, 영어와 프랑스어를 국어로 인정하는 나라라 모든 공산품에는 이 두 개 언어로 각각 설명문이 적혀 있어요. 처음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했는데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마치 사회의 이념처럼 뿌리 박혀 있어 경제적인다는

다시 그리운 쌍문동 생협 공동체

김종애, 윤희경, 이경미 그리고 김인숙 선생님에게

김금미 ●

이유로 그들의 윤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통념이 되어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질 않죠. (물론 역사적으로 꾸준히 퀘벡 주에서는 독립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디 사람 사는 데 편견과 차별이 없을 수 있나요? 나부터도 인도나 파키스탄의 음식 냄새만 맡으면 인상부터 써지니까요. 사실 캐나다 오기 전까지만도 내가 가고 싶은 나라 5위안에 인도가 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초월적인 삶을 무척이나 경탄해마지 않았으며 시성 타고르의 원숙 경로를 따라가보고도 싶을 정도였죠. 또 언젠가는 마더 테레사의 집에 가서 몇 달씩 봉사 활동도 해보리라고 마음먹기도 했었어요. 이 곳 토론토에는 특히 동남 아시아와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은 터라 여기저기서 보자기 (히잡)을 두른 여인네들, 심지어 여자 아이들을 흔히 본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한결 같이 약간의 비호의적인 시선으로 투덜대곤 하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긴커녕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유창한 영어에 한편으로 기죽고 또 한편으론 그들의 독특한 어조(inglish)를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저급의 문화인으로 치부하는 게 상례예요. 이 같은 편견이 어디 우리 민족과 인도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인간 관계란 상대적인 것이 아니던가요? 왜 여성 단체가 남녀 평등을 부르짖기 시작한 1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같은 구호를 외쳐야 하는데요? 저는 모든 게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같은 뿌리에서. 아집과 이기심. 이해심과 관대함의 결여. 즉, 편견과 차별화 혹은 변별화.

누가 이민 가서 무엇이 제일 좋더냐고 묻는다면 전 단연코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편견의 비좁은 내 자아를 국제적인 무대에서 시험해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교정 받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그래서 더 넉넉해진 맘으로 삶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영어란 오직 한 언어, 기껏해야 두 서너 개의 버전 (영국식, 미국식, 혹은 호주식 정도)을 지닌 하나의 외국어로만 알던 터였던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던가를 Konglish는 물론이려니와 changlish, spanglish, Janglish 등을 들으며 이해하며 하나의 교감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버전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절감합니다. **앎**

김금미 ● 서울에서 태어나 영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한 뒤, 지금까지 미술사 서적을 번역해오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미술사 관련 강의를 한 바 있다. 현재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 그는 생협의 같은 나눔조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김종애, 윤희경, 이경미, 김민숙)과의 인연을 '특별히 소중한 만남'이라고 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형법상 불법인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항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우회 유경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공임실 중절을 둘러싼

담론 속에, 사회적 조건과 연결된 복합적인 여성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월 13일, 보건복지부 주최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발족식

337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운하 사업이 국민의 합의 없이 소수의 건설기업에게 넘겨주는 사



업으로서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72점의 지정문화재와 177곳의 매장문화재가 사라지게 하며 경제성 또한 허구적임을 밝히고, 운하 백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2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세계 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



1908년 3월 8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민우회는 해고된 수백명의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과 수백일째 투쟁중인 KTX여승무원들을 기억하며, 여성이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액션-이랜드에 레드카드 보내기 등-을 주제로 3.8여성대회에 참여하여 기념식과 퍼레이드 등에 함께 하였습니다.

3월 8일, 유관순 기념관, 시청

● [반차별 영화제] 다함께 차차차 : 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을 다룬 영화들로 무료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제9법안 찬반투표>, <나의 혈육>등이 상영되었습니다.

2월 18일~20일, 중앙시네마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 2월 민우데이 <민우애니어그램>

명강사 정은지 활동가의 자상한 진행 속에서,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여한 회원들의 열렬한 호응에 부응코자, 소모임으로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월 27일, 민우회 교육장



● 3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2008년부터 신입회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하여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수요일에 신입회원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김인숙 대표와 함께한 2008 민우회 활동알기, 상담소 먼지의 진행아래 여성주의를 느껴보는 '나와 너에게 말걸기' 등으로 알차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2일, 민우회 교육장

● 본부+지부 활동가들의 '2008 열정, 전망, 나눔, 상근 활동가 워크샵'

본부와 지부 활동가 80여 명이 모여 여성주의,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운동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3~14일, 서울남산유스호스텔



전환기의 평동, 새 세대 청춘송가

신기루 ●

2008년 민우회 핵심 사업에 민우YOUTH라는 게 있다. ‘민우’가 무슨 뜻인가? 종종 물어온다. ‘한국’과 ‘회’가 만들어내는 무겁고 구린 느낌은 동시에 역사와 전통이 기도 해서 이름 바꾸자는 말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 근래 ‘M’ 단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건 또 무언가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강동원 영화가 흥행만 됐어도 이 별칭이 자리를 잡았을 텐데...) 민우YOUTH는 여성운동을 실천하는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대와 조우하고자 하는 ‘조직적’ 판단과 지향이다. 이로써 ‘민우회’가 사람들 사이에 소통되는 방식이 조금 더 상콤해지리라.

정체된 민우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없다. 평동 사무실 가득 에테르를 쏘아대는 활동가들 각각이 중하다. 그 파장 중에서, *시대가 부여한 우울함을 등에 지고도 우주가 발산하는 감수성에 시시각각 반응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점을 버리지 못한 문제적 청춘. 먼지, 락소년, 꼬깸, 신기루, 풀, 바람, 따우, 다라, 하나, 너굴*에 주목한다.

가락국수(칼 마르크스의 은어)님이 일찍이, 양질전환의 법칙을 전한 바 있다. 양적으로 늘어나다보면 질적인 도약을 한다는 것인데, 27명 상근활동가 중 10명이니 익숙한 비율 30%도 넘는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이들의 습성은 대개 이리하다.



표현해야 할 수 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시뻘겇지만 색감이 살아있는 독특한 웹자보를 기억하는지? 이것은 **먼지**와 **락소년**이 만들어낸 것이다. ‘차별은 나쁘다’를 ‘별나다’ 팀으로 줄여낸 것, 부산영화제를 슬쩍 도용하여 PIFF(Pyeong dong Irreplaceable (Imitation) Film Festa)로 응용한 예에서도 이들의 표현본능은 확인된다. 행운의 편지를 만들어 내 “이 편지는 평동에서 시작 되어…”의 놀라운 응용은 **따우**가 했다. 조합, 도용 및 가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원칙과 규정을 새로이 구성한다

765차 수요시위의 성명서를 읽어보았다면 성명서를 틀에 박히게 쓸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역사로 구성하는 연대의 의지가 그 글에 오롯이 담겼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근거가 있는 말로 들리게 하는 **다라**는 상근활동의 방식을 바꾸었다. 격무에 시달리거나 노동의 주기가 보편적이지 않은 이를 위한 반차는 그를 통해 도입되었다. 8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 **바람**은 산책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예민한 족수는 일상의 곳곳을 뒤적인다

‘곱추’라는 말을 농담으로 쓸 수 있는가?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거나 당연히 아이가 있는냐고 물을 수 있는가? ‘언니’라는 말은 친근한가? 불편한가? 비닐봉지, 난방기구의 과다 사용, 점심시간에 사무실 등이 켜 있는 것이 거슬리는가? 혹시 타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너무 크고 빠르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의, 의사결정, 역할배치에서 억압스러움을 느꼈는가? 밥은 모두가 모여서 같이 먹어야 하나? 이런 물음들이 오간다.

취향을 소유한다

다라는 샷을 추가한 에스프레소를 마신다. **따우는** 91년에 사서 낡아가 된 옷을 아직 입는다. **너굴**은 동그란 두상 위에 상담소 머리(=바가지 머리)를 얹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 **락소년**은 여름에 티셔츠 소매를 두 번 접어 입는다. **먼지**는 색동 반스타킹이 있다. 나는 목에 손수건, 머플러를 줄곧 두른다. 공통적인 취향은 유머구사. 웃기지 않으면 불안하다. 자학이든, 공격이든, 언어유희든, 무엇이든. 모람 세상을 보시라, 평범한 사진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흔적들이 허다하다.



너굴



아직은 신비주의, 3인이 온다

폴은 ‘술’과 ‘파’가 뒤섞인 목소리다. 벌써부터 격무에 시달리게 되어 얼굴빛이 좀 탁해졌다. 여과장, 봉사마, 부장님 먼저 가겠습니다 등 독특한 어법을 구사한다. **하나**는 “까알”을 남발, 밝은 에너지는 만방에 웃음을 전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많고 이것저것 경험 많은데, 도시락 설거지는 자꾸 지는 모양이다. **꼬깁**은 내공이 깊어 보이나 은근 웃기는 사람으로 낮고 기품 있는 목소리 뒤에 장난스러움이 있다. 예를 들어, 홍삼엑기스를 배즙과 바꿔먹는 센스를 가진.

10인을 둘러보니, 역시 도저히 안 묶이는 개별성이 핵심이다(어쩌다가 여기서들 만났는지, 인연이 다시 보이기도 하네). 요즘 단체들은 상근자의 M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오랜 연차와 신입연차의 간극에서 중간연차가 없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읽으면서 못내 서운했을 이들에게, 오늘 발견한 구절을 전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새 세대라는 것이 저들뿐이 아니고 앞 선 세대와 주고받을 것이 많으니,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기쁨, 민우회에서 만났다는 운명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전환기의 여성운동, 새 시대를 만들어갈 청춘! 봄을 맞아 기리어 보았다. **암**



신기루 ●

[관찰지?] 관찰아. [다시 생각해보] 하지만 그것도 관찰아.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를 바라보며

권미혁 ●

오늘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발표를 접하고 매우 분개하였다. 새 정부의 성격상 ‘공공성 약화’를 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허약한(?) 여성정책을 보았던 터라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MB정권의 성평등언프렌들리 관점이 증명되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정책의 후퇴냐 아니냐에 대한 가늠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가부를 폐지시키자는 발상 자체가 여성정책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정책의 경시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였고 민우회는 ‘여성정책기구의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여성가족부 존치’로 정리되면서 민우회는 “성평등 정책을 펼칠 정부기구는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꼭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주변의 다수가 여가부 존치로 정리되는 와중에 민우회가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겪은 곤란함은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하였다.

우선 곤혹스러운 점은 민우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논의가 ‘여가부 존치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다 보니 의견의 앞뒤 맥락이 함께 읽히기 보다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만 주목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주장은 ‘여가부 존치 반대’라는 의미로만 읽히고, 심지어 민우회가 여성정책기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전달하면서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즉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부에서 여가부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2006년 여가부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이 논의되던 과정에서도 여성정책기구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우회의 입장이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주장을 했지만 ‘여성계의 목소리’로는 ‘여가부 존치’가 가장 크게 부각되면서 민우회의 입장은 별로 주목을 받거나 사회의제화 되지 못했다. ‘주류’(?) 여성계와 입장을 달리한 - 그러나 인수위 안에 찬성인 것도 아닌 - 민우회의 주장은, 대립각이 분명하게 서 있는 논쟁 속에서 관심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민우회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이다.

이 기간 동안 한 조직의 대표로서 여가부 존치를 이야기했던 타 단체대표나 원로 여성운동가, 그리고 (민우회) 선배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여가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객인 국민보다는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향상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있으므로
 부처형태의 정책기구까지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읽을 수 있다.



존치를 위해 열심히 땀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민우회가 그동안 같이 해왔던 운동의 대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민우회가 가진 역사와 위치 때문이겠지만, 여성계의 ‘주류’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훨씬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민우회 입장에 대한 질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그동안 여성운동을 앞장서(?) 열심히 해온 민우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엠비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에 대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갈등하는 지점은 있다. 방법론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비록 잘 한 것은 없지만 일단 엠비 정부의 여성정책 후퇴의 상징인 여가부는 살려놓고 그 뒤에 새로운 기구의 상을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새로운 기구의 상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이후 과정에서 가족과 보육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달랐다.

이번 과정에서 나는 두가지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의미

있게 의제화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음으로 어찌면 우리는 일에 쫓겨 운동 사회내의 소통에 대해 덜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 그동안 의견은 다르지만 민우회와 토론하고 싶다는 사람을 한 사람정도 밖에 만나지 못했다. 과연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2001년 여성부를 만들 때와 달리 이번에 여성계는 한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 차이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여태도 그랬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이런 입장의 차이가 어떻게 소통되고 어떻게 존중되며 그러면서도 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차이를 드러내는 것의 의미와 과정이 공유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차이를 드러내야 하는가도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라면 횡단의 정치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횡단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존중에 기반한) 소통을 위한 매우 의도적인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 대표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

황금소영 ●



인도의 결혼식



마티르만디르

인도여행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는 거절의 말이 오갔으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고려되어 그러마 대답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해서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느낌만 가득할 뿐이다.

나의 인도여행은 요가수련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듣기 좋게 말하면 테마여행이었다. 처음부터 불교대학원 요가치료 전공생들이 요가의 본토에서 요가수련을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인도의 아쉬람이나 치유센터에서 찾아내 우리들만을 위한 여행을 마련하였다. 오르빌(Auroville), 벵갈로르(Bengalore), 아루나찰라(Arunachala) 세 도시에서의 요가수련 프로그램, 그리고 아주 약간의 관광이 우리의 여행이었다.

오르빌은 스리 오르빈도와 관련있는 공동체 마을로 수행 관련 여러 센터들에서 고유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을 중앙에는 '마티르만디르'라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연꽃봉오리 모양의 명상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Quiet Healing Center' 그 경관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 아늑하고 고요한 곳이었다. 그 중 'Liquid Flow'가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자궁체험'이라고도 한다. 따뜻한 물속에서 최대한 이완한 채 치유사가 이끄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여러 가지 감정, 아주 핵심적 감정까지를 경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유르베다(인도 전통의학) 마사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시작 전 치유사가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손길이 매우 부드러웠으며 아유르베다의 전통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했다. 마사지 후에는 세어놓고 치유사가 무릎까지 꿇으며 세심함과 부드러움으로 오일을 닦아주는데 그 과정이 기도와 같은 경건함과 인간애의 존중으로 다가왔다. 또 한가지는 'Ashtanga Yoga Class'였는데 창시자의 제자에게서 5일간 수업을 받은 것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선생님집 옥상에 천막으로 하늘을 가린 야외에서 아쉬탕가를 한 시간 반 동안 하는 것은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수행이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쉬탕가를 하러 가는 숲속 오솔길을 가장 추억한다. 30여분을 걸어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는 땀냄새에 이끌려 땀도 사고 물을 받았으며 그 이후의 숲 사잇길은 요즈음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고즈넉함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인도 전통 옷도, 화장지, 선물도 사며 그 길에서 내가 정말 인도에 있음을 실감하곤 했다.

그 다음엔 '비베가난다' 라는 요가치료의 메카에 5일간 머물렀다. 요가를 질병에 어떻게 처방하고 치료하는지 참관하며 증상별로 돌아가며 경험하였다. 그 밖에도 요가 호흡을 새로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정화를 느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루나찰라에서는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 사원과 그의 마지막 수행지를 참배했고 새벽 다섯 시부터 아루나찰라산 주위 14km를 걷는 산돌기 명상으로 여행을 마무리 하였다.

여행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인도는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는 더더욱 없다. 우연히 만난 장례행렬은 춤추고 연주하고 즐겁게 웃었고 숙소인 아쉬람에서 저녁 7시 경 시작한 결혼식은 그 다음날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아기들은 다 미숙아처럼 기력이 없어 보였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해부학 그림처럼 골격이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혼돈스럽기도 했지만 인도는 표현하기 어려운 영적 기운과 경외심의 나라였다.

물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고 침구를 물에 적신 듯 습기차고 방 안에 도마뱀과 온갖 곤충이 함께 있었으며 외양간이 바로 옆에 있어 냄새와 모기가 기승인, 그리고 차와 소와 사람이 경계가 없는 길을 함께 다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보호장치는 장착된 경적 외에 작은 호른 같이 생긴 경적기와 또 하나의 작은 경적기까지 세 개의 경적기를 거의 3초에 한 번씩 누르는 것이어서 온종일 귀가 찢어질 듯한 자동차 소리에 뒤덮여 있었다.

일행들이 떠나갈 정도로-습관대로 표현하면- '더러운' 숙소가 내겐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러는 나를 바라보는 나도 있었다. 일행 모두가 지치고 병이 났지만 가기 직전까지 망설여야 했을 만큼 아팠던 나는 몸도 맑아졌다. 멀리 왔으니 다 참 여해야지 하고 조급해 했을 내가 모두 프로그램에 간 뒤 숙소에 남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마음은 꽤 고요했다. 처음에는 아파서 다른 사람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두려워 삼가는 뜻에서였는데 점점 나를 관찰하는 여유로움이 되었다. 그건 달리 할 게 없이 혼자 남아서였기도 했지만 분명 인도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믿는다. 내게 인도는 그렇게 남았다. **영**



힐링센터



레스토랑에서

황금소영 ●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활동 하고있
고, 서울불교대학원 심신통합
치유학과 요가치료전공 학생
이고, 따뜻해지는 날씨에 행복
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해

나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축하해주 ^^

잔차 ●

주말에 무얼 해야 하나, 맨날 싸돌아다니다가 좀 놀망놀망해 볼까 나, 아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갈까나, 단번에 나를 사로잡은 싸인 하나. 바로 민우회와 함께 하는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 여성축제 ~> 아이 부끄러워~ㅋㅋ

주말에 1시 30분 약속이면 너무 이르잖아. 그래도 일어나 보니, 부랴사라 준비하면 열주 맞춰 갈 수도 있겠구나 싶다. 엄마가 밥을 차려주겠다고 하지만 않았다면. 헐~

그렇잖아도 내가 엄마의 노동을 무임금으로 착취해 먹고 산다는 자괴감에 고민하는 중인데, ‘주말이라도 내가 밥을 챙겨다려야지’ 하며 떡국을 요란뻑적지근하게 끓여서 좀 기분 좋게 먹고 설거지까지 마치고서야 나오는 마음이 한결 편하다.

엄마랑 머리 맞대고 빨강 컨셉을 어찌 배치할까 궁리하고 목이며 머리에 두르고 나왔다. 이미 한 시간 지나설랑은 잔차타고 피루리랄라 출발. 사실 여성의 날 행사에 처음 가는 나로서는 여성운동상을 받으실 할머니들 만날 기대에 설레었는디 어찌랴, 느즈막이 집을 나서 는 나는 이 버릇을 그다지 고치고 싶지도 않거늘.

꿈이 된 마냥 나른해지기는 아직, 알싸한 봄날의 정동거리를 헤매다 이화여고에 들어서니 잔차는 ‘보라(올해 전체 드레스코드)’ 색 물결을 타고 오는 ‘붉은(민우 드레스코드)’ 색 파도를 맞는다. 퍼레이드 하러 나서는 이들의 꿈무늬를 따라 시청으로 내려가다가 빨강 ‘민우들’이 있는 즈음, 잔차에서 내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걷는다. 낮선 이들 한견에서 ‘그닥’ 쑥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걷다 서다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알 듯한 사람들과 하나 둘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 ‘아이참, 머 이리 반가운 사람들이 다 있노~’ 하는 잔차라니! ^^~*

청계천을 휘- 돌아 나오며 이 친구 저 친구랑 이야기 하는 가운데 내 살던 이야기, 그들이 사는 이야기, 가까운 데서 들리는 사



람들의 수다들.

“울 엄마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 ‘여성의 날 축하해!’ 라고.”

“좋겠다, 부러워.”

“여성의 날 퍼레이드가 예전보다 많이 다채로운 것 같아.”

“겉모양만 그렇지, 뭐.”

비정규직이고, 운하고, 군가산제고, 차별금지법이고, 외칠 것 많은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잔잔하니 요렇게 저렇게 오고가 는 것들이 있다.



시청 앞 마당에서는 가수들도 오고 큰 사회자들도 오고 퍼포먼스도 한단다. 그 한편으로 온 종일 시민들과 만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각 단체들이 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소식지와 자료들을 나누어 주고 생태 관련한 간단한 체험도 하고 자신들이 발행한 책들도 전시하고 더러는 팔기도 하고했다.

꼼꼼히 들여다보며 서명도 하고 선물도 챙기고 소식지도 챙기고 이랜드에 엮서 보내기 액션도 하고, 해가 떨어지니 슬슬 싸늘해지는 기운에 옷들을 챙겨입고 행사의 마무리를 했다. 오옷,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구나. 그래도 민우들끼리 밥도 먹고 뒤풀이도 한다니 다행이구라!

된장으로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며 왜 이렇게 맘이 편한 거지? 흠. 알 수 없군. 뒤풀이에서는 알 수 있으려나? 맥주집에 가서 공공칠빵이랑 이중몸짓 게임을 하며 우리는 이랬다. “민우회 게임 못하는구나!” 한 순번을 돌지를 못하는 걸. ㅋ. 그러다 게임 싫다는 소리에 그럼 진실(게임)놀이 하자. 굉장히 오랜만에 원초적이고 단순한 질문들. 그러다가는 어느새 서로의 성적 환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경험들을 스스럼없이 열고 닫는다. 옆에서도 기웃거리던걸~

근데 말야, 낯모르는 이들과 더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감 보다는 말이지, 이런 게 있더라. 지금 당장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띄엄띄엄 만나지겠구나,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를 향해 열어 놓았구나, 스치듯 지나치더라도 서로의 향내 아련하게 기억할 정도로 그대들이 내 거리 안에 들어 왔구나, 한다. **앎**

나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축하해!!!
그리고 여성들아, 남성들아, 할머니들아,
아이들아, 풀잎들아, 모든 소수자들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해!!!



잔차 ● 해바라기하는 잔차.
교육공동체 두리하네에 살고,
한여름 혹은 한겨울에 티벳의
밤별을 볼테고, 매일같이 사랑에
빠지는, 이 몸쓸 그림은 사람...



열정의 고흐는 어디가고?

폴

십 대 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화가가 되려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에게 내가 미술을 전공할 수 있게끔 심적으로 지지받는 일은 쉬웠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기에는 스스로도 미안했고 또 형편도 되지 않았다. 이로서 화가로서의 꿈은 잠시 접었다. 물론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면 무리하면서라도 도전해볼 수 있었겠지만, 맹목적으로 달려가기에는 잔재주일 가능성의 무게가 대단했음으로 미리 절망하였다. 무엇이든 간에 확신을 가지기란 어려웠다. 그리고 그이처럼 광기어린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라면 굳이 내가 붓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 속 깊이 꼭 닳고 싶은 화가를 발견한 것이다. 그의 그림을 보면 미칠 것 같았다. 최승자 시인의 '그리하여 어느날 사랑이여'¹를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강렬한 느낌과 혼돈스러움을 내게 주었다. 반 고흐, 혼란스럽게 보이는 삶을 끝내 바둑바둑 버텨낸 고흐, 고흐의 평생 후원자 테오, 착한 동생을 가진 고흐가 부럽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는 없단만, 자신의 귀를 잘라 내어버린 그 과감성. 처음에는 이런 그의 열정에 빠져버렸다. 귀를 잘라버린 고흐,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었던 고흐, 소위 반미치광이 같은 그의 열정, 그에 부합되는 강렬한 붓 터치. 정말 너무 만져보고 싶은, 내 손 끝으로 느껴보고 싶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뒤 만난 고흐

고흐를 느끼기 위해서, 그의 그림을 한 번이라도 바로 앞에서 실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훌쩍 비행기에 오르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고흐에게로 향한 마음은 단지 마음뿐, 비행기에 오를 용기도 내지 못했고 돈도 없었으니 마냥 그의 자화상 염서를 부적처럼 치어다볼 수밖에- 그러던 차, 2002년 밀레展[밀레의 여정]이 열렸다. 당시 왜 고흐가 아닌 밀레展이 먼

1) 가거라, 사랑인지 사람인지, /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 살아, / 기다리는 것이다, / 다만 무참히 꺾여지기 위하여, / 그리하여 어느날 사랑이여, / 내 몸을 분질러 다오, / 내 팔과 다리를 꺾어 / 네 / 꽃 / 병 / 예 / 꽃 / 아 / 다 / 오 (그리하여 어느날 사랑이여 중에서)

저 열리는 것인지 우습게도 고흐의 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때, 한 쪽 편에 고흐의 그림들이 아주 살짝 몇 점 전시되었기는 했다. 그러나 고흐의 열정을 느끼기에는 부족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5년 후인 지난 해 말 드디어 고흐전이 열렸다. 정말 두근두근, 얼마나 미술관으로 뛰어가고 싶던지. 실제로는 바빠서였지만, 마치 맛있는 과자 자근자근 혼자서 아껴 먹으려는 어린 아이처럼 나는 전시가 시작된 날부터 전시를 보러 가기 직전까지 고흐전에 대한 기대감을 마구 부풀렸다.

거짓말, 다 거짓말

미술관 홈페이지를 보니 주중 오후 7시에 입장하면 2천원 할인도 해주고 나름 한가지게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는가. 무엇보다 고흐전이 열리는 미술관이 사무실과 지척 거리에 있다는 것은, 평동 활동가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던지.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끔 하기도 했다. 그래서 며칠 전 부랴부랴 일을 정리한 뒤에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흐를 만나러 그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매표하는 곳에 길다랗게 늘어선 인파들을 본 순간부터 기대감은 점차 걱정으로 변해갔다. 분명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주중 7시 이후에 관람객이 많지 않으니 좋다고, 가능하면 이때쯤 보러 오는 게 어떻겠냐는 뉘앙스의 공지를 했던 걸 분명 봤는데!

고흐, 당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후우~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표를 사서 미술관에 들어섰다. 일단 너무 시끄러웠다. 높은 천장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기 마련인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지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은근 귀를 따갑게 했다. 소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나보다 앞선 관람

객들에 가려져 제대로 그림을 볼 수가 없었다. 본래 고흐의 그림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외우고 싶었지만, 절대로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고흐의 그림들과 조우할 수가 없었다. 겨우 다 훑을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전시장 안에 마련된 상점에서 고흐 그림엽서를 한 장을 사곤 '이렇게라도 그의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게 어디야, 역시 고흐 그림은 최고구나' 라고 애써 위로했다. 이번 전시를 다녀온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름난 그림들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다고 평했지만, 나에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전시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유명한 작품들이야 그림책에서도 보아왔던 것들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펜으로 그린 고흐의 습작들이나 판화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새로웠다. 아무튼 내용을 떠나서 문제는 관람 문화였다. 떠돌고 물려다녔던 관람객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용하고 기분 좋게 그리고 충분히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적정 관람객 수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서 매표 간격을 조정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매표 간격 조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이유로 유명 화가의 전시를 굳이 가지 않는 편이었다. 내게는 여유롭게 그림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인사동 거리 구석구석의 작은 갤러리들이 더 좋다. 무명 혹은 신인 혹은 비주류 예술인의 작품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그림을 보러 온 관람객들의 표정에는 생동감이 있다. 다급함과 피곤함이 아닌, 생동감. 그래서일까. 고흐전이 열리면 시립 미술관 한 쪽에 마련된 천경자 화가의 상설展(천경자의 혼)이 오히려 빛이 났다. **앎**

풀 ● 이상한 나라의 풀,
요즘은 혹시 앨리스일지도모른다면,
종종 토끼가 꿈에 나온다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도 한다.



이제, 논에서 사는 생물과 이야기하자!

박민경 ●



백로



물달개비벼



물통벌

올해 여성민우회 생협의 화제는 단연 '논생물 다양성'이다. 내가 논에서 사는 생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던가? 음……, 생물은 아니고, 해충들은 생각해봤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날 불쑥 논생물이 내게 왔다.

2006년 '한일 논생물 조사 교류회'에서 홍성 유기논과 관행논에서 논생물 조사를 하여 유기논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 생협에서 조합원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던 나는 조합원들과 논생물을 직접 보러 홍성으로 갔다. 논두렁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가만가만 떠내 흰 쟁반에 모으니,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녀석들이 꽤 된다. 전엔 징그러워 눈살 찌푸리던 실지렁이도 꼬물꼬물하니 기특하고, 어릴 적 탁하게 고인 물에 무수히 떠있던 소금쟁이도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웠다. 이름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다양한 곤충들과 물풀이 담긴 쟁반을 한참 요리조리 뒤져보며,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이 귀찮아할 만큼, 이진 뭐예요? 이진요? 하고 재차 묻는다. '참나~ 내가 왜 이러지?'

작년에는 고양·남서여성민우회 생협에서도 한두 번 조합원과 논생물 조사 체험 활동을 했다. 그야말로 체험 프로그램이었지만, 조합원과 아이들은 논생물을 직접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논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생물 조사는 단지 조합원과의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올해부터, 여성민우회 생협에서는 '논다' 팀이 본격적으로 논생물 조사를 한다. '논다'는 '논의 다양한 생물을 생각하는 모임'의 약칭이다. 논다팀은 4월에 논습지와 논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 대해 공부하고, 5월부터는 홍성 풀무생협 논에서 정기적으로 논생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논생물조사의 목적은 무엇보다, 유기재배 논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유기논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확대하자는 것이다.

논은 5천년 전부터 인간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물을 가두어 만든 습지이다. 논에서는 벼와 다양한 생물이 공생 관계를 이루고, 우리 조상들은 이를 슬기롭게 이용하며, 벼와 생물을 함께 살리는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 발달과 함께 논앞의 이익에 급급한 인간은 벼만 대량 생산하기를 원했고 온갖 화학약품으로 이 공생관계를 끊어버렸다.

갯벌, 논과 습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 미생물과 실지렁이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흙을 갈아 진흙층을 만든다. 논에서는 이 진흙층이 잡초 씨앗의 발아를 억제한다. 1차 제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실지렁이나 유스리카 같은 먹이동물이 풍부하면 이들을 먹는 해충이나 곤충이 늘어나고, 거미나 개구리도 해충과 곤충을 먹고 개체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있는 논에는 백로 같은 새가 날아온다. 또한 벼는 이렇게 살아

있는 환경 속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쌀을 먹는 인간도 역시 건강할 수 있으니, 이만한 공생이 있을 수 있을까?

농촌에서는 지금 '논의 생물다양성'을 살려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여성민우회 생협의 주곡 생산지인 홍성 풀무생협이 그 중심에 있다. 제초제나 화학비료 대신 오리와 우렁이를 이용한 농법으로 건강한 쌀을 생산하던 분들이,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가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신다. 새로운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 여성민우회 생협에서도 손발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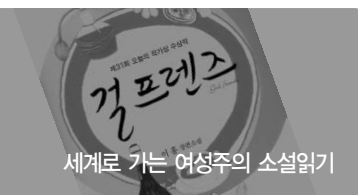
'논에서 사는 다양한 생물'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알려내는 일이 여성민우회 생협 조합원의 몫이다. 힘들여 생산한 쌀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도시 사람들이 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도 고맙다고도 하신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 농촌과 도시의 이어짐, 논에 사는 생물과 이야기하다 보면 찾아지지 않을까? **답**

박민경 ● 올해부터 남서여성민우회 생협에서 여성민우회 생협본부로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논의 다양한 생물을 생각하는 모임'인 '논다' 팀을 맡고 있습니다. foramian@empal.com

나, 특별한 그녀를 만나다

이홍 지음, 『민음사』



서가에 꽂힌 여러 권의 책들, 스크린을 채운 여러 편의 영화들, 글과 그림으로 표현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늘 무엇인가를 쫓는다. 그리고 내 시선이 멈추는 곳에서 그녀들을 만난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감추고 있을 것 같은 그녀들을...

내가 쫓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다. 하지만 내 시선은 조금은 다르고 특별한 지점에서 오랫동안 멈추곤 한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갖고, 세상의 틀에서 벗어난 그녀들. 그녀들은 그렇게 내 시선을 머물게 했지만, 그 멈춤은 부족함과 함께 끝나곤 했다.

이야기를 쫓고,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찾으며 해마다 그녀를 만났다. 『걸프렌즈』라는 제목은 내가 찾는 그녀들의 끈끈한 연대 같았다. 그 작은 형체가 쉽게 내 눈길을 잡았다. 그렇게 멈춘 시선은 길지 않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유일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엄마의 희망이 담긴 이름을 가진 한송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이야기 속의 그녀와 만났다. 그녀와 연애하는 남자의 다른 애인들과 걸프렌즈라는 모임을 함께하는 그녀.

그의 첫사랑 세진, 그의 가족 같은 보라, 그리고 그녀 송이. 그녀와 또 다른 그녀들이 만들어가는 사각관계(?)는 아주 특별했다. 그녀는 그녀들에 대한 질투로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그를 향한 감정의 형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그녀들 역시 그녀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기까지 한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사는 듯 보이는 그녀들은 이렇게 특별한 연애를 한다. 그녀와 그녀들은 사랑과 연애를 신선하고 특별하게 다루는 듯 보인다. 단지 '쿨하다'는 표현으로 담아 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때보다 내 시선을 강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했을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만났던 많은 그녀들. 그녀들은 항상 달랐다. 세상이 정해 놓은 틀을 받아들이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흔들렸다. 감정이라는 것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에. 그 모습이 늘 같지는 않았고, 결과도 달랐다.

그렇지만 세상과 다른,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그녀들이 붙잡았던 내 시선은 그 흔들림에 실망했고 또 다른 그녀를 찾아 움직였었다. 그리고 오랜 여행 끝에 그녀와 그녀들을 만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특별함을 지켰던, 그것이 더욱 특별해 보이는 그녀들.

오랜 머무름 끝에 다시 여행을 떠난다. 특별한 그녀를, 그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도 특별한 그녀가 될 수 있기를...**애크**

세상으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의 환물 ●

바닥은 이번 달 아니 상반기, 아니 올해... 이런 자료를 읽는다!

Women
Welfare

바닥_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

2008년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금요일 저녁 민우회 사무실. 작년 말 모임에서 다음 공부 주제를 '복지(띠엄띠엄 이긴 해도 우리가 안 다룬 주제가 이제 얼마 없더라구)'로 잡고 각자 자료를 알아오기로 했다.

은날 곰~ 읽을 자료 뽑아 왔어?

곰 아뿔. 나 너무 바빠서...

따우 야. 우리 너만 믿고 왔는데 어떡하냐!

오이 (소심하게) 상담소 책꽂이에도 영어책 몇 권 있는데.

곰 그거 함 봐봐.

오이 살라살라살라... 그리고 *WOMEN AND SOCIAL POLICY*(여성과 사회정책, 에 또...

곰 그 책 좀 보자.

(일동, 책의 목차를 훑는다. 다섯줄 정도 내려가서)

누군가 여기 있다 복지! "Equality, Difference and State Welfare: Labour Market and Family Policies in Sweden(평등, 차이, 그리고 국가복지: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가족정책)"

일동(혹은 타기) 그래 그래. 복지 하면 스웨덴 아니겠어? 이거 하재!

또 다른 누군가(아마도 오이) 그럼 누가 문장 몇 개 읽어봐. 쉬운가 어려운가 봐야지.

곰과 은날 응, 잠깐만. (무작위로 책을 들춰서 읽어본다) 살라살라살라... 쉬워.

일동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이거 하재!

그리고 다음 모임...

따우가 울부짖는다.

"The conservative/Catholic countries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emerged with a commitment to making the state a compensator of first resort through social insurance programs designed to maintain status differentials between occupational groups, and between men as breadwinners and women as wives and mothers. 보수적/가톨릭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은, 직업 군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 사이의 신분 차별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first resort(뭔지 모르겠삼)을 보장하는 데 몰입하게 함으로써 등장했다. 뭘 말이다냐. 이게 뭐가 쉬워! 난 왜 맨날 일케 긴 문장만 걸리는 거야? 흐앙~"

바닥은 또 다시 먼 길을 떠난다. 언제 우리가 읽었던 여성주의 영어자료들이 쉬웠던 적이 있었던건가.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엔, 그리고 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올해 말에는 이 논문을 다 읽고 스웨덴 복지 정책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겠지. 그 때 가서 바닥이 조금이라도 유식한 척을 할 수 있도록 민우회원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앙**

바닥_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 ●



고양여성민우회

민우데이 - 민우문화제(예정)

- 일시 : 4월 24일(목)

민우여성학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애주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폐경'이라 부르며 월경의 중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봅니다.

- 일시 : 5월 8일(목)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나눔장터

아나바다 장터/ 떡볶이/ 어묵/ 환경수세미/ 공정무역 물품 홍보

- 일시 : 4월 28일(월)

산지견학

- 팔당 달팽이 슬로우푸드 체험관 견학

- 내용 : 수확체험, 슬로우푸드 만들기 체험
- 일시 : 4월 12일(토) 매장 앞 8시 출발
(참가비 추후 공지)

고양여성민우회생협 제2매장 개장식

- 일시 : 4월 28일(월)

- 장소 : 마두동 제2매장

고양여성민우회생협 매장 7주년 기념식

- 일시 : 4월 말
- 장소 : 주엽매장

광주여성민우회

〈여성역사해설사회〉스터디 소모임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시
- 장소 : 본회교육실

자원상담활동가 12기 양성교육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본회 교육실

자원상담 활동가들을 위한 집단상담

본회 자원상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예정)

- 일시 : 4월 중순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64시간)

- 일시 : 4월 8일~5월 13일
(화, 목 오전10~오후5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영화감상동아리 '오로라' 참여자 모집

- 일시 : 수시

사진교실 회원모집

- 내용 : 기초부터 전사까지 12강
- 일시 : 4월부터 매주 토요일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교육장

회원 한마당

창립9주년을 회원과 함께 기념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열립니다.

- 일시 : 4월 30일(수)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민우여성학교

- 내용 : 여성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훈련
- 일시 : 4월 중
- 장소 : 남서민우회 교육실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의회방청 소모임

- 내용 : 의회방청을 위한 준비모임
- 일시 : 4월 3일(목)
- 장소 : 남부여성민우회 사무실

화요장터

- 내용 : 회원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 일시 : 4월 매주 화요일
- 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 앞

회원수련회

- 내용 : 회원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 일시 : 5월 중
- 장소 : 남이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강좌] 여성이 똬다, 지역이 똬다

우리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리가 잘 할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되고 있나요? 육
아기 여성, 노인여성, 직장인여성, 장애인
여성으로 바라본 우리 지역의 공공서비
스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일시 : 4월 중순~5월 중순, 총5회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환경과 나눔을 생각하는 민우되살림장터

- 일시 : 5월 9일(금) 오전 11시~오후 4시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 앞

도봉구 공간지킴이 열림식

도봉구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세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도
봉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도봉구의 살림살이와 도봉구청의 행정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도봉구청의 행정
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따져보는, '도봉구 공간지킴이'가 그 시
작을 알립니다.

- 일시 : 4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도봉구청 앞

[강좌] 끝이 아닌 시작, 환경 2

환경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 환경강좌가 작년에
이어 진행됩니다.

- 일시 : 5월 중순~6월 중순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원주여성민우회

<여성, 카메라로 세상을 만나다>

-영상 제작단 모집

- 내용 : 원주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내기 위한 구술사 다큐 만들기

- 일시 : 3월~6월 작업, 7월 중 시사회
- 장소 : 밝음신평 2층, 민우회교육장

<여성, 미디어에서 나를 찾다>

여성주의 미디어 모니터요원 교육생 모집

- 일시 : 4월~5월
- 장소 : 밝음신평 2층 교육실

전통매듭으로 목걸이, 핸드폰고리 만들기

- 내용 : 퀼트, 전통매듭, 규방공예 무료
강좌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9:30~12:00

인천여성민우회

수요집회 주관

- 내용 : 인천여성민우회 풍물패 '신끼'
의 공연이 있는 수요집회 주관
- 일시 : 4월 23일(수)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인형극으로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 프로그램 : 여성의 삶 드러내기-차별,
다름과 차이의 세상 / 미디어속에 드러
나는 성차별/ 왜 인형극인가? / 인형극
의 이해, 2 / 대본 수정 및 캐릭터 분
석 / 인형만들기 / 인형조종 및 발성 /
공연 등
- 일시 : 5월 중
- 장소 : 본회 교육장

워크샵 - 새로운 눈으로 몸을 보자

프로그램 : 미술표현을 통한 주체적 자아
찾기 I, II, III / 춤therapy를 통한 나만의

몸짓 표현 I, II, III / 워크샵(1박2일)

- 일시 : 5월 중
- 장소 : 본회 교육장

춘천여성민우회

들꽃나들이

- 공부방 친구들과 회원과 함께 봄 나들이
- 일시 : 4월, 5월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알림)
- 장소 : 미정

버룩시장 - 나눠쓰는 환경 장터

- 일시 : 4월, 5월(정확한 날짜는 추후 알림)
- 장소 : 팔호 광장 오거리

삼색 모람

- 맛있는 점심 함께하며 회원들간의 짝~한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 일시 :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달팽이 공부방



콘서트~♪ 콘서트~♪

함께를 펴 든 회원들의 대화

A : 아, 이번 함여도 참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그렇죠?

B : 네, 맞아요. 관심 가져야 하는 여성이슈부터, 공감 팍팍 되는 에세이까지 정말 함께 가는 우리들의 친구죠. ㅎㅎ.

A : 근데요 B씨, 저기 마지막 쪽에 있는 화려한 컬러광고는 뭐죠? 뭔가 두렵고 굉장한 아우라 뿜어져 나와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B : 네... 그게 말이죠. 민우회가 함께 이사가는 세 단체와 함께 사무실 건립기념 콘서트를 한데요.

A : 콘서트 라구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B : 하하하 글쎄, 민우회가 좀 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위해 '내집마련' 해서 이사간다고 작년부터 애써왔잖아요? 그치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A :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통해 좀 더 힘을 모아 보려나 보군요. 근데 누가 나온대요?

B : 마야, 윤도현 밴드, 강산에, 김C(뜨거운 감자)가 나온대요.

A : 어땀, 뽕뽕해라!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다 나오네!

B : 네. 개성있는 가수가 네 팀이나 나오니 지인들에게 권하기도 좋겠죠? 네 중 한 팀은 좋다 하지 않겠어요?

A : 호호호, 그럴겠네요. 그럼 먼 옛날 팔기짬과 유자차 판매 때부터 다져진 실력으로 티켓 판매에 나서 볼까요?

B : 그래요. 민우회가 우리 아니면 누굴 믿고 일을 벌이겠어요. 이 기회에 친구들과 멋진 공연도 보고, '시민공간 나루' 건립에도 한 힘 보태 보지요.

A : 좋네요. 하하하.

여직 할 일이 태산인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운동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한국여성민우회! 창창한 민우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반이 될 디딤돌을 놓아 주세요. 회원여러분만 믿습니다. ^^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 마당'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어라 민우회! 민우회원 생활백서

사랑짝 회비 인상하거!!

- 1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 2 민우회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다.
- 3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랑~짝 회비를 올린다.

사랑짝 회비 인상하신 고마운 회원분들!!!

권감현영 김미숙 김지숙(타기) 김현정(신나) 손봉희(봉달) 엄현주(엄산) 이주영(수달) 임현지 장밝은 전상희 최김하나

2008년 들어 회비 인상 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무한 애정에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소중한 회비, 알뜰히 쓰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윤강석	김양순	육진아	손미연	김연정	김희영	김정애	김원재
강현화	이향심	이예송	윤봉화	최옥희	이윤희	천재홍은	문경원
정덕숙	이지영	오정인	강경래	조성화	정미옥	김연홍	유미정
윤정희	이승후	조영만	김성현	조진경	이미라	박은경	김경명
박인환	최병철	박주민	권해수	이기훈	이진옥	안남희	황현숙
박금자	박차현	안미선	이선아	허은미	이인수	이성기	변몽룡
변성진	장영철	박선남	김경수	최계순	윤경숙	박은숙	신수진
정수영							

(2008년 2월 14일~2008년 3월 20일)



2008

시민공간 '나루' 건립기념 후원콘서트

주최 · 문의
녹색교통
☎ 02-744-4855
한국여성민우회
☎ 02-737-5763
함께하는
시민영동
☎ 02-921-4709
환경정의
☎ 02-743-4747

YB윤도현밴드 뜨거운감자김C와 마야 강산에 함께 떠나는 공감여행

일시 2008년 5월 17일(토) 오후4시

장소 잠실실내체육관 02-2240-8825

www.inaru.net/concert



회원문의 02-737-6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887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 02-739-8871 상담 02-739-1366~7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팩스 02-3411-3519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매장 02-2643-606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02-3492-7140 생협매장 02-3492-9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매장 031-919-1774 상담 031-919-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상담(노동) 033-254-2155

